

석사학위논문

光韓團의 조직과 활동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진 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규태

光韓團의 조직과 활동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Gwanghandan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진 숙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규태

光韓團의 조직과 활동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Gwanghanda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진 숙

장진숙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윤 성 호 (인)

심 사 위 원 조 규 태 (인)

심 사 위 원 권 기 중 (인)

국 문 초 록

光韓團의 조직과 활동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진		숙			

1919년 3·1운동 후 서간도 지방에서 한인들은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국권의 침탈 이후 압록강 대안의 유하현, 관전현, 집안현, 환인현 등지에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활동하던 한인들은 3·1운동을 계기로 삼아 보다 실제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장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 의병·유림계통의 인사들은 보약사·향약계·농무계·포수단 등의 단체를 통합하여 왕조를 부활시키려는 복벽주의의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또 한편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한인들은 한족회와 군정부를 조직하였다. 1919년 11월 군정부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명칭을 군정서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때에 광한단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그동안 광한단은 1920년 초에 관전현 향로구에서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소극적인 투쟁에 실망한 한족회 내의 소장파 현정경, 현익철, 이시열, 이호원, 김석손, 홍원경 등이 국내에서 서간도로 새로 들어온 장명환, 김관성, 이춘산, 김태호, 박정호 등과 함께 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광한

단에 대하여는 그 조직 시기와 배경, 주도 인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광한단은 1920년 봄, 즉 2월에서 5월 중에 조직되었다. 이때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서·북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편제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탁이 서간도에서 광복군총영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던 소장파들은 광한단을 조직하였다. 이는 광한단의 독립투쟁 노선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론과 이승만의 노선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또 광한단의 목표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국내에 진격하여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고 일제 관원과 친일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시열 등은 서로군정서의 소극적인 무장투쟁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한단을 조직한 것이다.

광한단의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 내 소장파와 국내에서 서간도로 들어와 합류한 인물, 그리고 기존에 서간도에서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다. 광한단의 단원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공화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안창호·이승만과 같은 기독교 계통이 아니라 대종교 계통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한독립단에서 광한단으로 합류한 이들은 화서 이항로 학파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또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이상룡 등의 소극적인 무장투쟁에도 반대하였다.

1920년 당시 광한단원은 100여 명에 이르렀다. 광한단의 주도 인물의 반 이상이, 그리고 단원의 70% 이상이 평안도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평북출신이 많았다. 광한단 구성원의 연령은 주도 인물의 반이 30대이고, 단원은 반이 20대이다. 광한단의 80%가 2·30대 젊은이들이었다.

광한단은 전국의 각 면에 지단을 설치하여 단원을 확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그 지단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단원 대부분은 연고지가 있는 평안남·북도에 집중되었다. 광한단은 1920년 6월 이후부터 평안남도의 평양과 박천, 평안북도의 정주 등지로 단원을 파견하여 지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현익철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체포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한단은 경상도에도 단원을 파견하여 지단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100여 명에 이르는 단원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광한단은 1920년 12월 평안남도에서 단원 9명이 체포되어 그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단원이 체포되는 등 위기에 처했다. 단장 이시열도 1921년 2월 국내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락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광한단은 다른 무장독립운동단체와 힘을 합하기 위하여 1921년 4월 북경군사통일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렇지만 주도권 장악의 다툼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시열에 이어 광한단의 단장이 된 현정경은 1922년 초 양기탁의 남만주통일운동에 참여하여 그해 중반 대한통의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광한단 출신의 수명의 단원은 대한통의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중반 통의부가 참의부·정의부·신민부로 재편될 때, 광한단의 단원들은 대체로 정의부에 참여하였다. 광한단 출신인 고할신은 1924년 10월 길림에서 김동삼 등과 전만통일회의를 개최하고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현정경은 1925년 통의부의 의용군 6·7·8 중대를 이끌고 정의부에 합류하였다. 또 이호원도 1928년 형을 마치고 만주로 돌아와 정의부에 참여하였다.

【주요어】 광한단, 이시열, 이호원, 한족회, 대한독립단

목 차

I. 머리말	1
II. 광한단의 조직	4
I. 광한단의 주도 인물	17
II. 광한단의 활동	29
III. 광한단의 해체와 광한단원의 동향	41
IV. 맺음말	47
참 고 문 헌	50
ABSTRACT	56

표 목 차

[표 1] 광한단의 주도 인물	28
[표 2] 광한단 주도인물의 약력	29
[표 3] 광한단원의 인적사항과 경력	42
[표 4] 광한단원의 출신지 분포	45
[표 5] 광한단원의 연령별 분포	46
[표 6] 광한단원의 재판 결과	53

그 림 목 차

[그림 1] 광한단 본부·한족회·대한독립단 본부 위치	27
-------------------------------------	----

I. 머리말

중국의 동북 지역 중 한 곳인 서간도는 한인 독립운동가가 망명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독립운동의 근거지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서간도의 유하현, 관전현, 환인현, 통화현 등지로 이주한 한인들은 집단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이곳에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인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면서 경학사·부민단·자신계 등의 자치기관과 신흥강습소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서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1919년 초 부민단을 중심으로 자신계·교육회 등을 통합하고, 유하현·환인현·통화현 등의 한인 주민들을 토대로 한족회¹⁾를 조직하였다. 1919년 4월 유하현에서는 군정부와 대한독립단이 수립되었다. 이상룡과 김동삼 등이 이끄는 군정부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직후인 1919년 11월 서로군정서로 발전하였고, 박장호와 조맹선 등이 이끄는 대한독립단은 기원독립단과 민국독립단으로 분화되었다가 1920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총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20년 2월 관전현 향로구에서 현정정·현익철·이시열·이호원 등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소장파에 의하여 광한단(光韓團)이 조직되었다.²⁾

광한단은 전원위원제로 단원의 우의와 대동단결을 중시하면서도, 대담하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³⁾ 1920년 국내에 폭탄과 단총으로 무장한

1) 본 논문에서는 한족회의 조직 시기를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인 1919년 5월 설을 채택하였다. 한족회·군정부의 조직 시기에 대해서는 1919년 3월 13일 설, 4월 설, 5월 설, 봄 설 등이 있다. 일제의 한 자료에는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개편되어 약장(約章)을 배포하였던바, 발회식이 1919년 3월 13일 거행되었다고 쓰여 있다. 1919년 봄에 조직되었다는 기록은 원병상의 수기에 나온다.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사』에는 5월 초순 서로군정서(군정부의 착각임-필자 주)가 탄생하였다고 쓰여 있고(p.50), 최형우의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그와 같이 나온다(p.5), 애국동지회 편 『한국독립운동사』(p.254-255)와 김승학 편저의 『한국독립사』(p.331), 이강훈의 『무장독립운동사』(p.75-76)에는 모두 4월 초로 되어 있다.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p.158-159.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4·5, 〈광한단〉,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 충남: 독립기념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304. ;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전쟁.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47. ; 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충남: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p.208.

대원을 파견하여 조선총독부의 기관을 파괴하고, 그 관원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항일격문을 배포하는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⁴⁾

이처럼 광한단의 활동이 주목되기에 지금까지 광한단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가 있었다.⁵⁾ 김태국은 한국독립운동사 사전에서 광한단의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⁶⁾ 그리고 강진영과 양지선은 이호원, 조준희는 이시열, 황이슬은 현정경을 다루면서 광한단 시절 이들의 활동을 검토하였다. 강진영과 양지선은 독립운동가 이호원의 광한단원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광한단의 설립 시기와 조직에 참여한 인물, 활동 내용을 간단히 다루었다. 그리고 이호원이 광한단의 활동으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것을 밝혔다. 조준희는 이시열의 민족운동을 밝히는 과정에서 광한단의 조직 시기⁷⁾와 가담 인물, 광한단의 격문(檄文)을 다루었다. 그러나 조준희의 연구는 이시열의 활동을 대중교에 집중하였기에 광한단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다. 황이슬 또한 현정경의 1920년대 전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광한단의 조직 시기와 주도 인물, 현정경의 광한단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광한단의 설립 시기는 대체로 1920년 초로 보고 있다. 둘째 주도 인물은 이시열, 현정경, 현익철, 이호원 등 한족회 소장 파들과 장명환, 김관성, 박정호 등 국내에서 만주로 진출한 독립운동가들이다. 셋째 활동 내용은 대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일제의 군사·행정기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서간도 지역 무장독립운동 단체로서의 광한단의 존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304-305.

4) 『독립신문』, 1921.02.17., 〈檄告二千萬同胞〉.

5) 강진영. (2012). “이호원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199-228. ; 양지선. (2020). “이호원의 재중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179-216. ;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중교”, 『승실사학』, 28: 177-207. ; 신용철. (2019). “항일 독립운동가 이시열, 운허 스님”, 『춘원연구학보』, 16: 207-231. ; 황이슬. (2016). “현정경의 민족운동과 그 항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81-118.

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3, 〈광한단〉. 충남: 독립기념관, p.368.

7) 조준희는 위의 논문에서 광한단의 조직 시기를 1920년 3월 7일이라고 밝혔으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광한단의 조직 시기를 음력으로 계산한 듯하다. 황이슬 또한 조준희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재는 대략 밝혀졌지만, 그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광한단의 조직 배경과 조직 시기, 둘째 주도 인물과 참여 인물의 특징과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셋째 광한단원들의 활동 내용과 그 의미, 넷째 광한단의 해체 후 단원들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유념하여 「서간도 지역 무장독립운동단체 광한단의 조직과 활동」을 전고(專稿)로 다루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첫째 광한단의 조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1920년 당시 서간도 지역의 무장독립운동 단체와 그 활동 전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광한단의 주도 인물과 참여 인물의 특징에 대하여 파악하겠다. 이것은 그들이 광한단을 조직한 이유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광한단의 조직 확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 활동 및 군자금 모집 활동에 대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넷째 광한단원의 이후 민족운동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려는 자료는 일제의 정보문서와 행형 관련 문서, 개인 기록 등이다. 먼저 일제의 정보문서와 광한단 관련 보고문서, 판결문과 신문조서(訊問調書), 다음으로 독립운동가의 회고록과 자필 이력서, 마지막으로 관련 인물의 회고록, 신문 기사와 기존 연구 등을 참고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3·1운동 이후 서간도 지역에서 새롭게 조직된 무장독립운동단체의 조직과 그 변화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의 서간도 지역 무장독립운동단체의 동향, 그리고 통의부의 결성과 참의부 분립의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광한단의 조직

서간도는 1910년을 전후로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등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처음 서간도의 관전현과 유하현 일대를 항일운동 기지로 삼은 것은 유인석(柳麟錫) 계열의 항일의병이었다.⁸⁾ 이들은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만주와 노령 등지로 망명하여 투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서간도로 이동해 온 의병부대들은 자치기관 겸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독립군 양성,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인석은 집안현에 보약사를, 백삼규(白三圭)·조병준(趙秉準)·전덕원(全德元) 등은 관전현과 환인현에 농무계, 향약계를, 이진용(李鎭龍)·조맹선(趙孟善)·윤세복(尹世復)·홍범도(洪範圖)·차도선(車道善) 등은 장백현, 무송현 등지에서 포수단을 조직하였다.⁹⁾ 이들 조직의 구성원은 대부분 유생들로 위정척사의 이념으로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독립운동기지 건설은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신민회 계통의 운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1911년 4월 유하현 삼원보에서 한인자치기구로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경학사는 한인의 이주와 정착, 경제력 향상, 항일민족의식 고취 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구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홍강습소를 설립하여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11년과 이듬해의 대홍작과 풍토병으로 사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간도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은 계속 늘어 1912년 통화현 합니하에 ‘부민단’이 조직되었다. 부민단은 재만 한인의 자활, 복리증진, 교육, 독립운동기지 건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19년 국내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서간도 지역에도 전해져 유하현, 통화현, 집안현, 홍경현, 관전현 환인현, 장백현, 안도현, 무송현 등의

8) 박환. (1991).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p.9.

9)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68.

만세시위 운동으로 발전하였다.¹⁰⁾ 3·1운동으로 서간도의 한인들은 독립이 쟁취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내로부터 수많은 청년들이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만주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독립의 열망 속에서 서간도 지역 민족지도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의 전개를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서간도 독립운동단체들은 단체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서간도에는 대한독립단과 한족화·군정부가 성립되었다.

1919년 음력 3월 15일 단군어천절(檀君御天節)을 맞아 각 현에 흩어져 있던 의병 영수(領首), 유림의 수뇌, 보약사·향약계·농무계·포수단의 대표 등 560여 명이 유하현 삼원보 서구 대화사에 모여 종전의 각 단체를 해체하고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였다.¹¹⁾ 대한독립단은 본부를 유하현 삼원보에 두고,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다.¹²⁾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독립단은 도총재에 박장호, 부총재에 백삼규, 그 아래에 자의 부장 박치익, 총참모 조병준, 총단장 조맹선 등으로 조직을 꾸렸다.¹³⁾ 대한독립단은 중앙본부 산하에 서간도 및 국내 각지에도 수많은 지단과 지부를 두고 군인과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¹⁴⁾ 또한 수시로 압록강 대안의 국내로 잠입, 일제 군정과 교전을 벌였으며, 청년들을 단기간 내 강력한 대오로 훈련 무장하여 국내 유격전을 전개하고자 하였다.¹⁵⁾

한편, 부민단 또한 1919년 5월 자신계·교육회 등을 통합하고, 유하현·통화현·환인현·집안현·임강현·해룡현 등 각 현의 지도자들과 한인 주민을 토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한족회(韓族會)로 발전하였다.¹⁶⁾ 그리고 한족회는 일종의 임시정부로 군정부(軍政府)를 조직하였다.¹⁷⁾ 군정부는 무장투쟁을 위한

10)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3, 3·1운동.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440-454.

11)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68.

12) 『동아일보』, 1920.09.19. <대규모의 대한독립단>.

13) 김승학, 위의 책, p.369.

14) 김승학, 위의 책, p.370.

15) 한국국가보훈처. (2007). 『이자해자전(李慈海自傳)』. 서울: 국가보훈처, p.61.

16) 최형우. (1945).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제1집. 서울: 동방문화사, p.5.

군사정부였다. 따라서 군정부에서는 군대를 편성하고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침공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직 체계를 완비하였다. 그 결과 이상룡(李相龍)이 최고 책임자인 총재, 여준(呂準)이 부총재, 이탁(李沆)이 참모장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¹⁸⁾ 이렇듯 3·1운동 이후 서간도에는 북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독립단과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한족화·군정부가 조직되었다. 당시 북벽주의 계열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 계열인 한족회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¹⁹⁾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의 한성정부와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전하였다.

통합을 이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 지역에 조직된 군정부 등 무장독립운동단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예속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여운형을 특사로 파견하여 군정부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더불어 단합할 것을 요청하였다.²⁰⁾ 이에 한족회와 군정부에서는 대표 윤기섭(尹琦燮)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어 독립운동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당사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²¹⁾

그 결과 1919년 11월 17일 군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한편 명칭을 서로군정서로 개칭하였다. 처음에 군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이상룡이 “내 생각에 정부를 세운 것이 너무 빠르지만, 이미 세웠으니 한 민족에게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으리요. 또한 지금은 바야흐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니, 마땅히 단합해야 하며, 권세 있는 자리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설득하여 ‘군정부(軍政府)’란 명칭을 ‘군정서(軍政署)’로 바꾸었다.²²⁾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칭한

17)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p.157.

18) 박환. (1989). “서로군정서의 성립과 그 활동”, 『한국학보』, 15: 98-128, p.101.

19) 이강훈. (1984). 『항일독립운동사』. 서울: 정음사, p.105.

2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국역 석주유고, 下』,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1. 서울: 경인문화사, p.158.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292.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령부로 무장독립전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의 표시였다.

그런데 모든 서간도의 한인 독립운동가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흔쾌히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설립 초기에 유교적 성격이 강했던 대한독립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독립단은 군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할 때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²³⁾

한편 1919년 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위임통치론’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독립운동계에 알려졌다. 이승만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파리행이 여의치 않자, 이승만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청원서를 3월 3일 제출하였다. 신채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을 때,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신채호는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이승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임시의정원의 투표 결과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²⁴⁾ 신채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될 때에도 위임통치 청원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당시 독립전쟁론을 주장한 임시정부 내 이동휘세력, 하와이의 박용만세력, 북경·만주·노령의 일부 독립단체들은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²⁵⁾

이와 같은 불만으로 먼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인물 중에서 이승만과 임시정부·임시의정원을 비판하며 상해를 떠나 북경으로

2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앞의 책, p.156.

23) 대한독립단은 1920년 이후야 본격적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대한독립단은 참모부장 조병준이 1919년 12월 5일 자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평안북도 독판이 되어 공채 모집도 위임받게 된 후부터 임시정부에 복종하였다. 채근식. (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p.57. ; 민국독립단은 1920년 경부터 대한청년단연합회 회원들과 연합하여 상하이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광복군사령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박환. (1991).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p.27.

24) 「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1919.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권, 임시의정원 I,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5) 오영섭. (2012).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81-156, p.82-83.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20년 8월 이승만의 위임통치에 반대하고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노선을 주장하던 박용만, 신숙, 신채호, 이회영, 배달무, 김대지, 이갑, 장건상, 남공선 등 15인이 북경에서 군사통일촉성회를 결성하였다.²⁶⁾

그리고 서간도에서도 이승만의 위임통치론 제기에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19년 12월에는 한족회의 기관지인 『한족신보』를 통해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외교론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²⁷⁾ 그러나 서로군정서의 무장투쟁노선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론에 밀려 실시되지 못했으며 국내 진격 투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남만주 지역의 정세가 대규모 군사행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간도의 독립운동가 중 일부는 임시정부의 외교론, 이승만의 위임통치론에 반대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군정서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즈음에 광한단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광한단 조직의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설이 다양하여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광한단의 조직과 관련된 1차 자료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① 1920년 초 이시열(李時說)은 이탁(李鐸)이 지배하는 光復軍(광복군총영: 필자)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탁의 배하(配下)가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이탁(李鐸)의 광복군(光復軍), 조맹선(趙孟善)의 독립단, 안병찬(安秉瓚)의 청년단 등에서 이전부터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을 인발(引拔)하여 새롭게 본단(本團)을 조직한 것이다. <중략> 이명환(李明煥)은 1920년 2월 광한단에 가입하고 광복군과 독립단 등의 연락사무에 종사하였다.²⁸⁾

26) 조규태. (2021). “해산 김정묵의 중국 관내에서의 민족운동”. 『해산 김정묵과 가문의 독립운동』. 서울: 도서출판 선인, p.71.

27) 『한족신보』, 1919.12.11., <민족통일문제에 대하여>.

28)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② 유하현에 위치한 서로군정서의 목표는 정식 군대를 지휘하여 입국 투쟁하
는데 있었지만 1년 동안의 업적은 뜻과 같은 발전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시 남만 독립운동의 정세로 보아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불가능한 실정이
었다. 이에 한족회 내의 소장파 현정경(玄正卿), 현익철(玄益哲), 이시열
(李時說), 이호원(李浩源), 김석손(金錫巽)²⁹⁾, 홍원경(洪元京) 등은 국내에
서 새로 오는 장명환(張明煥), 김관성(金觀聲), 이춘산(李春山), 김태호(金
泰浩), 박정호(朴正鎬) 등 40여 인과 함께 관전현 향로구로 진출하여
4253년 경신(庚申 서기 1920년) 2월에 광한단(실은 의흥단(義興團)인데
표현 명의를 광한단이라 함)을 조직하였는데...³⁰⁾

③ 피고 이호원(李浩源)은 대정 9년(1920년) 5월 동지 이시열(李時說), 현병
근(玄炳瑾), 현익철(玄益哲), 김관성(金觀聲) 등과 함께 조선독립운동 기관
으로 광한단(光韓團)을 조직하였고, 피고 등 5명은 간의부 위원이 되는 등
안녕질서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³¹⁾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한단의 조직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1920
년 2월 설과, 5월 설로 나뉜다. 일제의 광한단원 검거 문건에는 광한단이 이
시열에 의하여 1920년 초에 조직되었다고 쓰여 있다. 같은 문건에는 이명환
이 1920년 2월에 광한단에 가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승학은 『한국독립
사』에서 관전현 향로구에서 4253년 경신(庚申 서기 1920년) 2월에 광한단
이 조직되었으며 조직 당시에는 의흥단(義興團)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이호원의 판결문에는 1920년 5월로 되어 있다. 이호원(李浩源)은 대정 9년
(1920년) 5월에 자신이 이시열(李時說), 김관성(金觀聲) 등과 광한단(光韓團)
을 조직하였다고 하였다.

29)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
회), p.390에는 김석손(金錫巽)으로, 김관성, 현정경, 현익철의 공훈록에는 김석선(金錫善)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19년 4월 2일 일제문서에서 김규환·현익철과 함께 金錫巽을 찾을 수 있
다. 「興京地方鮮人獨立騷擾ニ關スル狀況報告」(1919.04.02.), 『興京縣內鮮人騷擾ノ狀況ニ關
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0) 김승학, 위의 책, p.390.

31) 「이호원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그런데 채근식은 『무장독립운동비사』에서 한족회와 서로군정서가 1921년 5월 조직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아 광한단이 조직되었다고 기록하였다.³²⁾ 그것은 적어도 광한단의 조직 시기가 1921년 5월 이후임을 뜻한다. 모든 자료에서 위치와 주도 인물, 설립 배경 등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에 반해 조직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1년여의 오차가 보인다.

하지만 광한단은 1920년 봄, 즉 2월에서 5월 중에 조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뒤에 광한단원의 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광한단원의 활동 및 재판에 대한 관련 신문기사는 1920년 12월에서 1921년 11월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박문학(朴文學)의 평양 계리금융조합 사건,³³⁾ 이호원,³⁴⁾ 궁인성·박정호³⁵⁾ 등의 재판 관련 기사가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광한단이 1920년 봄 즈음 조직되었으며, 광한단원들은 1920년 중순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1921년부터 그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광한단이 1921년 5월에 조직되었다면 1920년 12월의 광한단원의 활약에 대한 기사와 1921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광한단원의 재판 기사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한단은 1921년이 아닌 1920년에 조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광한단의 조직 시기를 1920년 2월과 5월 중 언제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광한단은 1920년 2월 무렵 조직되기 시작하여 1920년 5월에 설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광한단의 조직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시열(李時說)의 “이탁(李鐸)이 지배하는 광복군(光復軍, 광복군총영: 필자)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탁의 배하(配下)가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리

32) 채근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나 誤記 또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군정서의 모체가 되는 한족회가 1921년 5월에 유하현 삼원보에서 조직되었으나 한족회는 在事간도 동포의 자치기관이며 혁명단체는 아니다. 무장군사체로 서로군정서가 조직되어 일반 청년들은 이 군정서가 무장을 갖추어 국내로 입국투쟁할 줄 알았으나 同군정서는 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위한 소극적인 훈련기관에 불과하였다. 이런 점에 만족치 못한 한족회 내의 소장파에 속하는 이호원, 이시열, 현익철, 현정경은 관전현 향로구로 진출하여 광한단을 조직하였다.” 채근식. (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p.52.

33) 『매일신보』, 1920.12.25., <금융조합소사실내에서 음모단과 순사의 맹렬한 권총전>.

34) 『동아일보』, 1921.05.01., <광한단원 판결, 리효원은 징역 10년>.

35) 『동아일보』, 1921.04.17., <광한단원 판결, 1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궁인성 외 4명의 판결 연도>.

하여 자기 스스로 이탁(李鐸)의 광복군(光復軍: 광복군총영), 조맹선(趙孟善)의 독립단, 안병찬(安秉瓚)의 청년단 등에서 이전부터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을 인발(引拔)하여 새롭게 본단(本團)을 조직한 것”³⁶⁾이라는 주장에 주목해야 하겠다. 이시열의 주장에 따르면, 이탁이 광복군을 조직하고 이시열에게 가입을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시열이 광복군·대한독립단·대한청년단의 인물 중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광한단을 조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광한단의 조직 배경은 이탁의 광복군 조직 및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이시열에게 광복군 가입을 권유한 이탁(李鐸)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안창호(安昌浩)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탁(李鐸)은 1889년 3월 18일 평안남도 성천군³⁷⁾에서 대지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제용(濟鏞), 호는 동우(東遇), 자는 태연(怡然), 본관은 전주이다.

그는 1908년 평양 대성(大成) 학교에서 교장 안창호로부터 민족교육을 받고, 재학 중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³⁸⁾ 1910년 국권을 침탈당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강습소 설립에 관여하였고, 신흥학교 유지를 위해 신흥학교 유지회를 조직하여 성금을 모금하였다.³⁹⁾ 1912년에는 서간도 한인자치기관인 부민단 조직에도 참여하였다.⁴⁰⁾ 1913년에는 유하현에 있는 일신학교(日新學校)의 교장이 되어 교민의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하였다. 그는 1919년 27결사대⁴¹⁾ 활동 이후 한족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⁴²⁾

36)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7) 「故東愚李鐸(濟鏞)先生の 抗日鬭爭記」(1962)에는 ‘成川郡 靈泉面 蘆洞里 193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한상도. (2017). “이탁의 독립운동 역정과 생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87-124, p.89.

38) 한상도, 위의 논문, p.90.

39) 한상도, 위의 논문, p.93.

40)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1916.08.0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1)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 7적을 주살하기 위한 결사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독립운동사』 7, 의열투쟁사.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265-271.

42) 「國外情報: 西間島地方 情報 一束」(1921.03.1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안창호가 내무총장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이탁은 스승 안창호를 도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기 위하여 서간도와 상하이를 오가며 서간도 독립운동 세력과 임시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다.⁴³⁾

상하이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확정하고⁴⁴⁾,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령과 만주의 동포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최고기관이며 동시 독립운동의 모획과 명령의 중앙본부”인 정부의 명령 아래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⁴⁵⁾ 상하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의 직할 부대의 창설이 여의치 않자 이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탁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간도 지역 군사조직을 통합하여 군무부에 복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탁이 이시열에게 광복군에 들어올 것을 권유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이탁은 1920년 4월 초,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창호를 만나 서간도 지역 군사조직으로써 광복군사령부⁴⁶⁾ 설치를 논의하였다. 이탁의 흥사단 입단도 이 무렵이었다.⁴⁷⁾ 이탁은 1920년 6·7월경에 관전현 안자구로 가서 대한청년단연합회장 안병찬에게 광복군총영을 조직하라는 임시정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⁴⁸⁾ 이렇게 광복군총영은 이탁을 통해 임시정부의 지시를 전달받고, 광복단⁴⁹⁾(단장 이탁, 부단장 오동진)을 중심으로 대한청년

43) 한상도, 앞의 논문, p.87. ;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안창호일기」, 『도산안창호전집(4)』. 서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44) 『독립신문』 38호, 1920년 1월 17일. 국민개병의 원칙을 밝히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45) 『독립신문』, 1920.02.05., 〈國務院布告 第 1號〉.

46) 광복군사령부의 조직은 사령장 조맹선(趙孟善), 부관 겸 훈련국장 여순근(呂淳根), 참모장 이탁(李鐸), 군정 겸 군기국장 김승학(金承學), 군법국장 유응하(劉應夏), 군령국장 박이열(朴利烈), 소모국장(召募局長) 홍식(洪植), 정보국장 양기하(梁基瑕)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267.

47) 이명화. (2002).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과 통일노선』. 서울: 경인문화사, p.419. ; 「안창호 일기」, (1920.02.27.),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안창호일기」, 『도산안창호전집(4)』. 서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p.869.

48) 「吳東振 事件 判決」(1932.06.21.), 『사상일보』, 제2권 제4호.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 한상도. (2017). 앞의 논문, p.107.

49) 1920년 음력 정월(양력 3월) 안동현을 소재지로 한 의용대가 광복단으로 개칭하였다. 한상도, 위의 논문, p.105.

단연합회와 민국독립단⁵⁰⁾이 연합하여 조직되었다. 광복군사령부보다 1개월 먼저 조직된 광복군총영은 서간도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한 임시정부의 지방 사령부였다.⁵¹⁾

이탁이 이시열에게 가입을 권했던 광복군에 대하여는 1920년 5월 「안창호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창호는 일기에서 이탁과 광복군사령부 조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탁이 “자기의 동지와 독립단 수뇌, 청년단 수뇌들과 오랫동안 협의한 결과로 각 수뇌 인물이 연합하여 모험대를 조직하되, 그 이름을 광복군(光復軍)이라 하고, 특정 단체에 부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속한 국가적 군인이 되게 하자 하여 광복군을 조직했다고 말했다”라고 기록하였다.⁵²⁾ 이탁이 안창호와 서간도 지역 군사 조직을 논의할 때 이미 조직되어 있는 광복군을 언급한 것은 바로 광복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5월 경 서간도의 한인단체인 한족회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 편제시키려 하였다. 1920년 5월 말 안창호는 조상섭(趙尙燮)을 서간도에 보내 한족회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속 민사기관으로 인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라도 불응하면 거류민단체를 통하여 서간도의 한인을 총괄할 작정이었다.⁵³⁾

그러니까 광한단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간도의 독립운동단체와 한족회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편제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920년 초 위임통치론을 주장한 이승만 집권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간도의 무장독립운동단체를 광복군총영으로, 한족회를 한족회 또는 거류민단으로 재편하려 하자, 이에 불응한 서간도의 인사들이 광한단을 조직한 것이다.

일제정보문서에 의하면, 1920년 2월, 혹은 그 직전, 이시열은 여순근(呂淳根)⁵⁴⁾, 김두만(金斗萬)⁵⁵⁾ 등과 관전현에서 광한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단장은

50) 대한독립단은 1920년 2월 이후 연호 사용 문제로 내분을 겪다가 1920년 4월 청년단연합회 가입 여부를 놓고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기원독립단과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민국독립단으로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33: 101-140, p.133.

51) 윤대원, 앞의 논문, p.135.

52) 「안창호 일기」, 1920년 5월 7일·10일,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안창호일기」, 『도산안창호전집(4)』. 서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p.905-907.

53) 「안창호 일기」, 1920년 5월 22일,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위의 책, p.921.

이시열, 부단장은 여순근이었다.⁵⁶⁾ 여순근은 대한독립단⁵⁷⁾과 대한청년단연합회의 경호부장⁵⁸⁾으로, 김두만은 대한청년단연합회⁵⁹⁾의 교제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1920년 2월 혹은 그 직전에, 이시열은 대한청년단연합회의 김두만과 대한독립단의 여순근과 협의하여 광한단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 후 김두만과 여순근은 이탁이 참여하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함께하였다.⁶⁰⁾ 김두만은 1920년 5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참리부 외무사장에, 여순근은 이탁의 광복군사령부의 부관에 임명되었다.⁶¹⁾ 이러한 사실로 보아 김두만과 여순근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이시열과는 노선이 달라 광한단의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이시열은 1920년 3~4월 현정경 등 광복군사령부·광복군총영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0년 5월 현정경(玄正卿), 현

54) 여순근(1876~1946)은 한국무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에 참전하였다.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훈련부장이 되었으며, 안병찬·김찬성·김승만 등과 함께 안동현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를 조직하고 경호부장이 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독립운동사』 7, 의열투쟁사.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303.

55) 김두만(평북 의부 출생)은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청년단연합회에서 활동하였고, 평안북도 독판부의 교통국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교통통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원년(1919) 주요 사건」 (1919.07.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2 92,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2년(1920) 주요 사건」 (1919.07.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2 92,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6) 「不逞鮮人狀況二關スル件」 (1921.03.02.),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두만이 이시열·여순근과 광한단을 조직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순근과 김두만은 1920년 중후반 이후 광복군사령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이 기록은 광한단 조직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시열과 여순근의 한자는 각각 李時烈, 呂順根으로 쓰여 있다.

5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독립운동사』 7 의열투쟁사,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303.

58) 「安秉瓚 等 逮捕에 關한 件」 (1920.05.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9) 「安秉瓚 等 逮捕에 關한 件」 (1920.05.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不逞鮮人 潛入 資金募集의 건 續報」 (1920.06.09.),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0) 김두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 교제부장, 여순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무국 경호부장. 「國外情況: 上海在住不逞鮮人の 狀況」 (1921.04.29.),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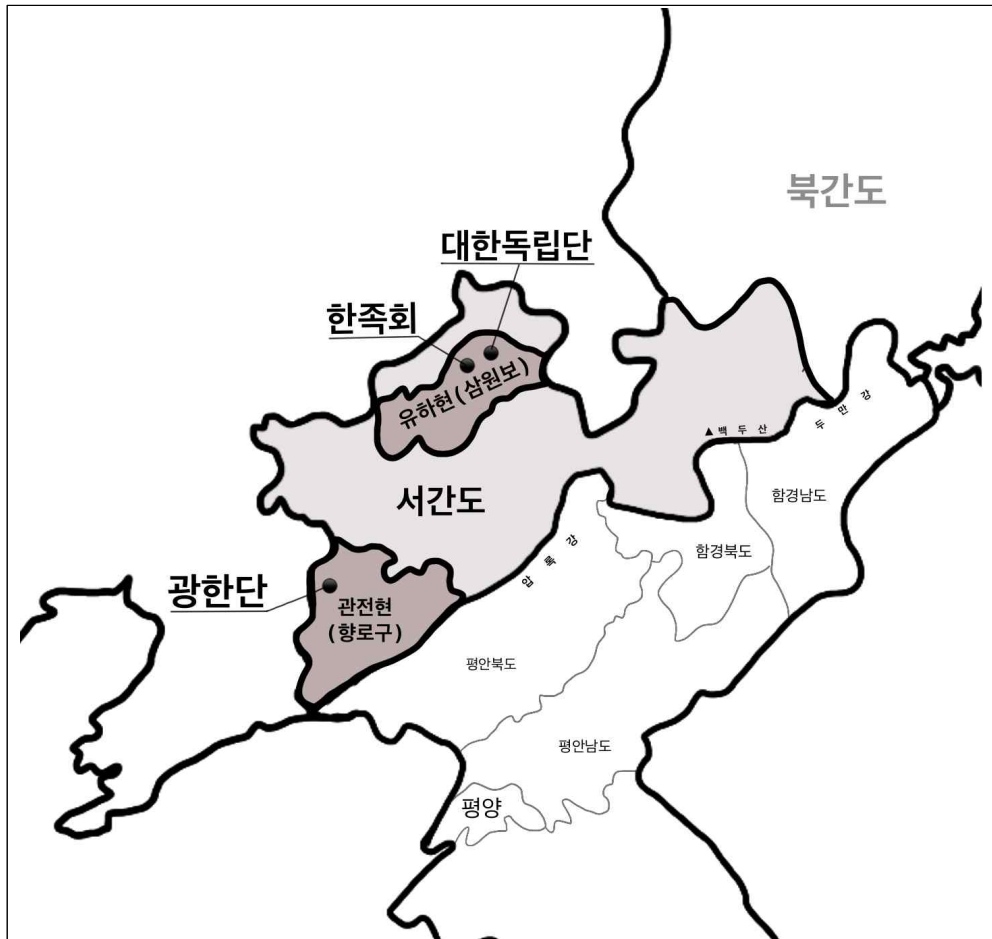
6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267.

익철(玄益哲), 이시열(李時說), 이호원(李浩源), 김석손(金錫巽), 홍원경(洪元京) 등은 국내에서 새로 오는 장명환(張明煥), 김관성(金觀聲), 이춘산(李春山), 김태호(金泰浩), 박정호(朴正鎬) 등 40여 인과 함께 광한단을 새롭게 창설하였다.

광한단은 처음 단장제로 운영되다가 1920년 말 현정경이 책임을 맡은 이후 위원회제로 운영되었다. 현정경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김이대가 부위원장이었다. 그 아래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광한단은 전원위원제로 채택하여 단원 간에 평등한 지위에서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⁶²⁾

62)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그림 1] 광한단 본부·한족회·대한독립단 본부 위치



- * 지도는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수록 「재만 한국인 주요 활동지(1921년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 서중석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작성, 「국외 在住 조선인 분포도」(1921년 4월 현재) 및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경기도: 아세아 문화사 수록 「재만 한인 민족운동자의 활동지」 등에 의해 작성.

Ⅲ. 광한단의 주도 인물

광한단의 주도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없으므로 여러 자료에 언급된 인물과 그 직위를 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광한단의 주도 인물

시기	주도 인물	전거
1920년 2월	이시열(단장), 여순근(부단장) 김두만	* 「불령선인상항에 관한 건」
1920년 2월	이시열(단장), 정석희(간부), 현병근(=현정경, 간부)	** 「광한단원 검거의 건」
1920년 5월	이시열(단장), 이호원(간의 위원)	매일신보 1921. 1. 29. 1921. 1. 13. 동아일보 1921. 5. 1. 1921. 5. 31.
1920년 5월	간의부 위원 이시열, 현익철, 김관성 현병근(=현정경),	*** 「이호원의 판결문」
1920년 말	현정경(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이대(부위원장), 김관성(검무), 이시열(계획위원장), 고할신(비서) 현익철, 이호원, 김석손, 홍원경, 장명환, 이춘산, 김태호, 박정호	김승학. 『한국독립사』, 1965, p.390

* 不逞鮮人狀況二關スル件」(1921.03.02.),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7)』.

**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 (26)』.

*** 「이호원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기존에 광한단은 서로군정서의 활동에 실망한 한족회의 소장파 엘리트 현정경·현익철·이시열·이호원 등이 국내에서 서간도로 들어온 장명환·김관성·이춘산·김태호·박정호 등과 함께 조직하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탁의 광복군 합류 제안을 거절한 이시열은 ‘자기 스스로 이탁(李鐸)의 광복군(光復軍:

광복군총영), 조맹선(趙孟善)의 독립단, 안병찬(安秉瓚)의 청년단 등에서 이전부터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을 인발(引拔)하여 새롭게 본단(本團)을 조직하였다’⁶³⁾고 했다. 이것은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 내에서 이탁과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이 이시열과 함께하였음을 의미한다.

광한단의 조직에 관여했으며, 단장이나 간부 등의 직위를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한 <표 1>의 인물들의 출신지, 당시 나이, 신분 계층과 광한단 조직 전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은 광한단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한단을 조직하고 주도한 인물의 약력은 <표 2>와 같다.

<표 2> 광한단 주도인물의 약력

번호	이름	생년	1921. 나이	생지/주소	경력	광한단 직위	판결
1	이시열 (李時說) 李耘虛 李學洙 (본명) 李時悅	1892	30	평북 정주군	대성학교(1910~1911) 동창학교(1913) 교원, 대동청년단(1913), 일신학교(홍동학교, 1915) 설립, 교사, 배달학교(1918)교원 설립, 교사, 서로군정서(1919), 한족신보(1919)	단장 / 계획 위원장	
2	현정경 (玄正卿) 玄炳根 (본명) 玄炳瑾	1881	41	평북 박천군	백일세제도 반대 운동(1904) 대한독립단(1919) 한족회(1919), 서로군정서(1919)	중앙위 원회 위원장 /단장	
3	현익철 (玄益哲) 玄益喆	1890	32	평북 박천군	홍동학교 교사(1917) 대한군정서(1919) 신흥무관학교(1919) 한족회(1919) 서로군정서(1919)		징역 3년
4	이호원 (李浩源)	1891	31	충남 공주군	공주군 보통학교(1909入) 관립경성고등보통학교(1916 卒) 유구공립보통학교 교사(1916) 홍동학교 교사(1916) 한족회(1919) 서로군정서(1919)		징역 10년 (1921)

63)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김관성 (金觀聲) 金信濟 金觀公	1891	31	평남 진남포	서로군정서 사무원	검무 (檢務) 위원장	
6	김석손 (金錫巽) 金錫善	미상	미상	미상			
7	홍원경 (洪元京)	미상	미상	미상			
8	장명환 (張明煥)	미상	미상	미상			
9	이춘산 (李春山) 李承文	1894	28	평북 용천군			징역1년
10	김태호 (金泰浩)	1901	21	평북 정주군			
11	박정호 (朴正鎬)	1902	20	황해도 황주군	삼성학교 서로군정서		징역 8년
12	김이대 (金履大) 金圭煥 金利大	1890	32	평북 선천	대동청년단(1909) 대성학교 대명학교 교사 동창학교 교사(1913) 일신학교 교사(1913)	부위원 장	변절
13	고할신 (高轄信)	1891	31	평남	대한독립단	비서	만주사 변 후 변절
14	정석희 (鄭錫熙)	미상	미상	미상		간부	

*〈표1〉의 주도 인물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일제는 이시열(李時說)을 광한단의 단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⁶⁴⁾ 그리고 1921년 초의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신문 기사에도 이시열이 단장으로 나온다. 다만 서간도에서 활동하다 1920년 초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승학의 『한국독립사』에는 이시열이 계획위원장으로 나온다. 이 내용으로 추론하면, 이시열이 광한단을 조직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64)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26).; 「不逞鮮人 行動의 件」(1921.04.1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27).; 「管内 不逞鮮人 一覽表 進達의 건」(1921.11.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에 따라 광한단의 설립 초기에 단장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시열은 1892년 2월 25일 평안북도 정주군 고현면 어호동⁶⁵⁾에서 아버지 종빈(鍾彬), 어머니 배천 조씨 은천(百川 趙氏 銀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학수(學洙), 호는 운허(耘虛)이며,⁶⁶⁾ 본관은 전주이고 안원대군파(安原大君派)의 23세손이며⁶⁷⁾, 춘원 이광수와는 8촌간이다.⁶⁸⁾ 이시열의 처 백한남(白漢南)의 집안은 관서지방의 유력한 유림양반가이다. 장인 백균행(白均行)의 8촌이 오산학교의 초대 교장 백이행(白彝行)이며, 6촌 백례행(白禮行)은 운암 박문일의 제자로 화서학파이다. 이시열의 처가가 민족운동의 인재를 양성한 오산학교, 위정척사운동의 기반인 화서학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광한단이 위정척사계열의 유림과도 관계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이시열은 어릴 때 고향의 서당과 가숙(家塾)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1908년 봄, 측량술을 배우면서부터 신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이시열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평양 대성학교에 입학하여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폐교할 때까지 민족교육을 받았다. 이후 잠시 귀향했던 이시열은 1913년 봄 승회균(承晦均)·김규환(金奎煥)·김진호(金鎭浩)와 함께 만주로 가서 윤세복이 세운 대종교의 동창학교 교사가 된다.⁶⁹⁾ 그곳에서 대종교에 입교하고, 그해 여름에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에 가입하였으며,⁷⁰⁾ 이때 이름을 ‘학수’에서 이시열로 바꾸었다.

이시열과 함께 동창학교로 간 김규환·김진호 역시 동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김규환은 이시열과 대성학교를 함께 다녔으며 평안북도 선전의 대

65)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송실사학』, 28: 177-207, p.179-180. ; 신용철. (2019). “항일 독립운동가 이시열, 운허 스님”, 『춘원연구학보』, 16: 207-231, p.209에 는 정주군 신안면(新安面)으로 나와 있으나 조준희의 논문을 취하였다.

66)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송실사학』, 28: 177-207, p.177에는 1962년 이운허로 개명하였다고 나온다.

67) 전주이씨 안원대군파 종친회. (1995). 『全州李氏安原大君派大同譜』 卷之三, 경기도: 회상사, p.142-143. ; 신용철, 위의 논문, p.211. ; 조준희, 위의 논문, p.180.

68) 신용철. (2019). “항일 독립운동가 이시열, 운허 스님”, 『춘원연구학보』, 16: 207-231, p.209.

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93.

70) 신운용. (2015). “대종교세력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5-54, p.39. ; 김동환. (2000). “백산 안희제와 대종교”, 『국학연구』, 5: 63-93, p.67.

명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김규환의 이명은 김이대(金履大)⁷¹⁾로 훗날 이시열과 함께 광한단을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⁷²⁾

일제의 탄압으로 1914년 동창학교가 폐교되자 이시열은 다시 귀향하였다가 1915년 가족을 데리고 홍경현 홍묘자 하가보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6월 김공제(金公濟)·김규환과 함께 일신학교(1916년 2월 흥동학교로 개명)⁷³⁾를 설립하고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6년과 1917년에는 광한단을 함께 조직하는 이호원(李浩源)·현익철(玄益哲)이 흥동학교(興東學校)의 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⁷⁴⁾ 또 이시열은 1918년 봄 통화현 반랍배에서 승진(承震, 승회균)·김기전(金基甸)과 함께 배달학교(培達學校)를 세워 교포 아동에게 민족교육을 하였다.⁷⁵⁾

3·1운동 이후 서간도 민족지도자들이 각지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이시열은 한족회⁷⁶⁾와 서로군정서에 가담하였다. 또 한족회 기관지 『한족신보(韓族新報)』의 사장 및 주필로도 활동하였다.⁷⁷⁾ 1920년 1월 16일 중국경찰대가 한족신보사를 수색하여 인쇄기를 압수하는 사건이⁷⁸⁾ 일어나자 한족신보의 사장직을 사임하였다.⁷⁹⁾

71) 이용창. (2017). “독립운동가인가 변절자인가”, 『사건과 인물로 보는 우리 근현대사』 27,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조준희, 앞의 논문, p.190.

72)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사회), p.390.

73) 日新學校는 홍경현의 재만 한인 관할지역이 흥동과 흥서로 나뉘어 따라 1916년 2월 興東學校로 개명되었다.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중교”, 『승실사학』, 28: 177-207, p.186.

7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9. ; 강진영. (2012). “이호원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199-228, p.207.

75) 조준희. (2020). “평북 정주 배천 조씨 일가의 배달학교 설립과 경신참변”, 『대중교연구』, 3: 133-204, p.139-143.

76) 「朝鮮人獨立運動 狀況 報告의 건」(1920.06.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7) 朴定勳 신문조서, 朴定勳 독립군자금 모집 사건(國漢文) 검사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7권 獨立軍資金募集 6.

78) 『독립신문』, 1920.02.03. ; 「한민족독립운동사 연표」(1920庚申), 『한민족독립운동사』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9) 1920년부터는 교포신문 『효월신문(曉月新聞)』의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2년(1920) 주요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2 92권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후 관전현 향로구로 가서 한족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현익철·현정경·이호원 등과 함께 1920년 2월 광한단을 조직하였다. 이때 이시열의 나이 29세였다. 이시열은 서로군정서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에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과감하고 전투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⁸⁰⁾

이시열의 뒤를 이어 광한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인물은 현정경이었다.⁸¹⁾ 광한단의 단장이었던 이시열은 1920년 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창호를 만나고⁸²⁾ 1921년 특별단원으로 홍사단에 가입하였다.⁸³⁾ 이에 따라 노선의 차이로 광한단과 떨어져서 현정경이 광한단의 책임을 맡았던 것 같다. 당시,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한 김승학이 현정경(玄正卿)을 광한단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 것⁸⁴⁾으로 보아, 그는 광한단을 위원회제로 바꾸고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현정경은 1884년 1월 15일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태어났다.⁸⁵⁾ 본명은 병근(炳謹)이고, 호는 하죽(河竹)이다. 이흥복(李興福)이란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정경의 할아버지는 한문학자였고, 아버지는 농부였다. 광한단의 간의 위원으로 활동한 현익철(玄益哲)과는 인척 관계이다.⁸⁶⁾ 현정경은 향리에서 한학을 가르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일제의 백일세(百一稅) 실시에 불만을 품고 평남 박천과

80) 광한단은 대규모의 전투를 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전덕원의 反통의부 사태를 기록한 정이형 회고록에도 “광한단계의 인물들이 시대 청년은 많았으나 실제 무장군인이 배하에 없음을 알고 용이하게 해치운 후...”에서도 광한단원이 무장군인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편. (1996). 『雙公 鄭伊衡 回顧錄』. 서울: 국가보훈처, p.73.

81) 『臨時報 第58號(不逞鮮人 動靜)』(1922.02.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2) 이시열은 1920년 12월 초 상하이에서 이광수의 주선으로 안창호를 만났고, 홍사단에 가입하였다. 신용철. (2019). “항일 독립운동가 이시열, 운허 스님”, 『춘원연구학보』, 16: 207-231, p.217.

83) 이시열은 1921년 에 홍사단에 특별단원으로 입단하였다. 이명화. (2002).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과 통일노선』. 서울: 경인문화사, p.417.

84)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이시열은 계획위원장이었다.

85) 『新華日報』(1942.05.11.), 〈한국 혁명계의 선배 玄河竹 동지를 추모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0 중국보도기사 2).

86) 연주현씨대종회. 『延州玄氏大同譜』 卷之五 ; 황이슬. (2016). “현정경의 민족운동과 그 항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81-118, p.85.

안주의 주민을 동원하여 재무소를 습격하고 일본의 재무소원을 처단하였다. 이후 고향을 떠나 유랑하다가 관서지방에서 의암 유인석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1910년 국권침탈 후 시골로 숨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대정치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⁸⁷⁾

현정경은 3·1운동 이후 유인석계의 인물이 활동하던 서간도로 망명하여 의병계 인물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정경의 대한독립단 활동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재만한족통일회의’를 발기하고 ‘군정부’를 조직하여 각 방면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군정부’를 조직한 뒤 현정경은 ‘대한독립단’ 내부의 봉건적 군주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한독립단의 민주파 청년들과 연합하여 ‘광한단’을 조직하였다고 한다.⁸⁸⁾ 그러니까 현정경은 대한독립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한족회’를 조직하였고, 서로군정서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0년 초 서로군정서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단에서 분화된 기원독립단과 민국독립단 중 공화주의를 추구한 민국독립단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광한단을 조직하였던 것이다.⁸⁹⁾

현익철은 1890년 4월 27일 평안북도 박천군 동면에서 현석은(玄錫殷)의 장남으로 태어났다.⁹⁰⁾ 이명은 현익철(玄益喆)이며, 호는 묵관(默觀)이다. 그의 성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1931년 8월 봉천에서 체포되었을 때 현익철은 자신에 대하여 “집안이 빈한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 가사를 돕고, 한편 독학을 하고 있었다.”⁹¹⁾고 말하였다.

87) 『新華日報』(1942.05.11.), 〈한국 혁명계의 선배 玄河竹 동지를 추모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0 중국보도기사 2).

88) 『新華日報』(1942.05.11.), 〈한국 혁명계의 선배 玄河竹 동지를 추모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0 중국보도기사 2).

89) 황이슬도 ‘재만한족통일회의’를 한족회,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이해하였다. 황이슬은 현정경이 1919년 7월 이후부터 한족회·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황이슬, (2016). “현정경의 민족운동과 그 항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81-118, p.88. ; 대한독립단은 1920년 4월 이후 단기(檀紀) 또는 융희(隆熙)를 연호로 사용하고자 주장하는 기원독립단(紀元獨立團)과 민국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국독립단(民國獨立團)으로 나뉘었다.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33: 101-140, p.133.

90)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8.

91)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8-629.

그는 국권 침탈 직후인 1911년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서간도로 건너가 동지를 모으려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향하였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독립운동 군자금모 모집하러 노력하던 중 일본 은행권을 위조하여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다가 1912년 평안남도 안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재판을 받고 반년 간 옥고를 치렀다.⁹²⁾

현익철은 1917년 다시 고향을 떠나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하다가 1917년 초겨울 홍경 방면으로 가서 이시열이 김공제·김규환과 함께 설립한 흥동학교의 교사가 되어 교포 아동에게 민족교육을 하였다.⁹³⁾ 그러던 중 1919년 국내의 3·1운동 소식이 홍경현에도 전해졌으며, 현익철도 홍경현의 한인들과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⁹⁴⁾ 3·1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열기가 한층 고조되자 현익철은 북간도로 이동하여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에 들어가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익철은 대한군정서에서 활동하던 중에 무장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른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할 결심한다. 현익철은 대한군정서의 주선으로 통화현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 분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을 받았다.⁹⁵⁾

신흥무관학교를 마친 현익철은 한족회에 참가하고 서로군정서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서로군정서 자체의 한계와 중국의 군벌과 일제의 압력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광한단의 조직에 참여하였다.⁹⁶⁾ 대한군정서의 강력한 무장투쟁을 경험한 현익철은 서로군정서가 정세를 살피며 기회를 기다리는 행태에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이호원(李浩源)은 광한단의 주도 인물 중 거의 유일하게 남부지방 출신이다. 이호원은 1891년 4월 11일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월송리에서 태어났다.⁹⁷⁾ 이호원의 이명으로는 이호언(李浩彦), 강덕재(康德載), 이효원(李孝源),

92)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2006년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93)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9.

94) 「興京縣 內 鮮人 騷擾狀況에 관한 件」(1919.04.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5)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2006년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96)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 채근식. (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p.52.

이갑원(李甲源)이 있다.⁹⁸⁾

이호원은 18세의 늦은 나이에 마을의 서당에 들어가 1년여간 전통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1909년 19세에 공주군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공주군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관립경성고등보통학교(이하 경성보고)에 입학하여 1916년 졸업하였다.⁹⁹⁾ 또한 이호원은 경성보고에 다니면서 주시경이 세운 조선어강습원에서 고대조선어와 현대조선어문법 강의를 들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¹⁰⁰⁾ 경성보고를 졸업한 후에는 공주의 유구공립보통학교(維鳩公立普通學校)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경성보고 시절 작성한 일기가 일제에 의해 문제 되면서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¹⁰¹⁾

1916년 중국 흥경현 홍묘자촌에 도착한 이호원은 그곳의 민족교육기관 흥동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재개하였다. 흥동학교는 1913년 대종교에 입교한 이시열이 동창학교 교사 경험 이후 흥경현에 세운 민족학교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흥동학교는 흥경현에서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¹⁰²⁾ 이러한 이유로 일제에 의해 흥동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호원은 항일운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부민단이 있던 유하현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동학교에서의 인연이 있던 이시열의 권유를 받고 한족회에 가담하였다.¹⁰³⁾ 이호원은 한족회 활동을 통하여 서간도의 한인들의 자치를 도우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시열이 사장으로 있는 한족회 기관지 『한족신보』의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재만 한인의 민족의식

97) 「이호원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98)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 『동아일보』(1921.05.01.), <광한단원 판결, 리효원은 징역 10년>.

99) 이덕근. 「반일 민족독립지사-이호원」, 국가보훈처, p.2.에는 이호원 자신이 “1912년 3월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해 1915년 졸업하였다”라고 했지만, 양지선의 연구로 이호원이 경성고보를 졸업한 것은 1916년으로 여겨진다. 양지선. (2020). “이호원의 재중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179-216, p.183.

100) 고영근. (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 생활』 10.2: 27-46, p.42-43. ; 이덕근. 「반일 민족독립지사-이호원」, 국가보훈처.

101) 이덕근. 「반일 민족독립지사-이호원」, 국가보훈처. ; 「리호원」, 국가보훈처. ; 양지선. (2020). “이호원의 재중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179-216, p.186-187.

102) 「興京縣 內 鮮人 騷擾狀況에 관한 件」(1919.04.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3) 양지선, 위의 논문, p.190.

고취에도 힘썼다.¹⁰⁴⁾ 3·1운동 이후 이호원은 무장활동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시열과 함께 광한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광한단의 주도 인물 중 한족화나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가 아닌 이들은 1920년 국내로부터 새로이 서간도로 건너온 김관성(金觀聲), 장명환(張明煥), 이춘산(李春山), 김태호(金泰浩), 박정호(朴正鎬) 등이 있다. 이들 중 김관성(金觀聲)은 1891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으며 김신제(金信濟), 김관공(金觀公), 김관성(金觀成, 金官成, 金寬星, 金寬聖) 등의 이명(異名)을 가지고 있다.¹⁰⁵⁾ 그의 가족관계 등 집안이나 학업에 관하여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김관성은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건너가 1920년 2월 광한단을 조직하는데 참여하였다.

광한단의 주도 인물은 대종교의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단장 이시열, 부위원장 김이대(김규환)¹⁰⁶⁾, 간의부 위원 현익철, 이호원이 그러하다. 단장 이시열은 1913년 환인현의 윤세복을 찾아가서 대종교에 입교하였고, 대종교의 민족교육기관이자 시교당(施教堂)인 동창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때 이시열의 친구이며 동지인 김규환 즉 김이대도 교사로 함께하였다. 동창학교의 폐교 이후 이시열은 흥경현에 대종교계의 흥동학교(일신학교)을 설립하였고, 1918년에는 통화현에 대종교계 배달학교를 설립하였다. 흥동학교는 1911년 대종교에 입교한 박은식이 국혼을 세우기 위해 저술한 『발해태조건국지(渤海太祖建國誌)』·『명림답부전(明臨答夫傳)』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¹⁰⁷⁾ 그러므로 흥동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현익철과 이호원 역시 대종교계 인사였을 것이다.

둘째 광한단의 주도 인물은 화서 이항노 학파의 인물이 다수였다. 대한독립단 출신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정경¹⁰⁸⁾, 비서 고할신 그리고 조직 당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도적 역할을 한 궁인성¹⁰⁹⁾과 오봉희 등이 그렇다. 현정경

104) 「이호원 간부등기표」(1951년 이호원 자필 작성), 국가보훈처. ; 강진영, 앞의 논문, p.208.

105) 『한국독립운동 인물사전』,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

106) 이숙화. (2017). "大倣敎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p.106.

107) 임상선. (2004). "朴殷植의 『渤海太祖建國誌』의 검토", 『韓國史學史學報』, 10: 69-92, p.73-75. 『연합뉴스』, 2015.08.14., <만주 흥동학교 역사교과서 100년 만에 문화재된다>.

108) 화서연원독립운동인맥도(4), 장삼현, 사단법인 화서학회 이사장 겸 화서학회 부회장.

과 궁인성은 한말 유생 의병장 유인석의 제자였으며, 궁인성은 유인석과 함께 의병전쟁에 참가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안창호 등 기독교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광한단은 대중교의 인사와 화서 이항노 학파의 유학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광한단의 인물들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의 소장파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한족회·서로군정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한족회의 이상룡 등 상층부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무력을 양성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국의 호의를 얻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¹¹⁰⁾ 이러한 까닭에 서로군정서는 설립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내에 입국 투쟁을 하지 못하고,¹¹¹⁾ 소극적인 훈련만 하는 상황이었다.¹¹²⁾ 이러한 서로군정서의 소극적 투쟁에 불만을 가진 한족회 내의 소장파 현정경(玄正卿), 현익철(玄益哲), 이시열(李時說), 이호원(李浩源), 김석손(金錫巽), 홍원경(洪元京) 등이 국내에서 새로 오는 장명환(張明煥), 김관성(金觀聲), 이춘산(李春山), 김태호(金泰浩), 박정호(朴正鎬) 등 40여 인과 함께 광한단을 조직한 것이다.¹¹³⁾

또한 광한단에는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출신으로서 이시열과 관계가 있는 이들이 함께했다. 초기에 광한단 설립에 대하여 이시열과 논의하였던 여순근과 김두만 역시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정경과 비서 고할신은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다가 광한단에 참여한 이들이다.

확인되는 광한단의 주도 인물 14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2명으로 평안도 출신이 8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신지를 알 수 없는 4명을 제외하면 충청남도 출신 이호원과 황해도 출신 박정호 외에는 모두 평안도 출신들이다. 또 연령대를 보면 단장 이시열을 비롯하여

109) 화서연원독립운동인맥도(2), 장삼현, 사단법인 화서학회 이사장 겸 화서학회 부회장.

110)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p.238-239.

111)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112) 채근식. (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p.52.

113)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현익철·이호원·김관성·김이대·고할신이 30대이며, 이춘산·김태호·박정호가 20대이다. 40대인 현정경을 제외하면 나이를 알 수 있는 모든 인물이 2·30대 청년들이다. 현정경 역시 갓 40대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서간도로 새로이 들어온 인물들이 대부분 20대로 기존 한족회 구성원보다 더 젊은이들이었다. 광한단은 평안도 출신의 2·30대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광한단의 주도 인물에는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소장파 외에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 출신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대종교계통과 화서 이항로학파의 인물도 있었다. 그리고 광한단 주도 인물의 대부분은 평안도 출신이었으며, 연령은 2·30대의 젊은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광한단은 1920년 초, 서간도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IV. 광한단의 활동

광한단은 단원을 모집하여 지단을 설치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며,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고, 무장투쟁을 통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하였다. 1921년 4월 17일 자 『동아일보』에는, 광한단원인 궁인성 등이 조선 독립을 위하여 널리 단원과 군자금의 모집을 통해 지단을 조직하고 관전현 본부와 연락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다.¹¹⁴⁾

그 실행을 위하여 우선 단원을 국내에 진입시켜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하여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단원과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광한단은 전국 218군의 각 면에 무장 기관을 예치하여 동지를 두고, 폭탄과 단총을 준비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제의 군사기관과 행정기관을 파괴하려 했다.¹¹⁵⁾ 이렇게 식민통치 질서를 교란한 이후에 정규군대를 건립하여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독립전쟁을 전개하기에 앞서 광한단은 비밀리에 단원을 모집하였다. 광한단은 연고지에서 개인적 인연을 활용하여 입단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단원을 모집하였다. 박정호는 김관성, 이인형은 최만혁의 권유로¹¹⁶⁾ 광한단에 가입하였고, 김만길은 ‘자기 동네 최제균의 집에서 김용달의 권유로’¹¹⁷⁾ 광한단원이 되었다.

광한단이 지인의 권유로 단원을 모집한 사실은 다음의 대한독립단 가산지 단장이며 광한단원이었던 오봉희의 판결문을 통해 파악된다.

114) 『동아일보』 1921.4.17., <광한단원 판결, 1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궁인성 외 4명 판결 언도>.

115) 진혜준. (1988). “한족회의 민족독립운동에 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보급처: 독립동지회), p.390.

116) 『매일신보』, 1921.04.13., <대한독립단 수괴 궁인성 공판>.

117) 『매일신보』, 1921.10.22., <巡査가 劍杖一個로, 검사의 취조를 받고 공판에 또 독립단까지 숨긴 일까지>.

‘대정 9년 음력 7월 중 전부터 아는 김두극(金斗極)은 알지 못하는 박승연(朴勝衍)과 피고(오봉희)의 집에 와 장남정(張南正)의 집을 방문하는 도중 방문한 것이라며 마을 밖의 주점에 동행하자 청하여 부득이 따라가는 도중 장남정의 집에 같이 가자고 청함으로 역시 다른 생각 없이 함께 동가(同家)에 들어가 앉아 알지 못하는 김흥서(金興瑞), 장남정 양인이 동행한 박승연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가산군독립지단을 조직하기 위함이라며 휴대한 단원 사령서 및 불온의 서류를 내보이는 고로 피고(오봉희)는 놀라 소매를 떨치고 나와 즉시 집으로 돌아오려 하자...’¹¹⁸⁾

위와 같이 오봉희의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광한단은 기존 단원의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친자·이웃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단원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1921년 일제의 정보문서에는 광한단원의 수가 1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다.¹¹⁹⁾ 그러나 일제의 정보문서와 김승학의 『한국독립사』,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비사』 등에 언급된 인물과 당시의 신문 기사에 나오는 단원만 해도 70명에 달한다.¹²⁰⁾

광한단원의 출신지와 연령과 경력 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118) 「오봉희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6.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19)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20) <표2>와 <표3> 참조.

〈표 3〉 광한단원의 인적사항과 경력

번호	이름	생년	1921년 나이		출생지	경력
1	방일진 (方一鎭)	1888	34	평북	정주군	곡물상 항일투쟁 연락장소 제공(1918~1919) 군자금 모집
2	방경진 (方敬鎭)	1875	47	평북	정주군	
3	김이순 (金利淳)	1889	33	평북	정주군	
4	오봉희 (吳鳳熙)	1882	40	평북	박천군	대한독립단 가산지단장(1920)
5	백학제 (白鶴濟)	1883	39	평북	정주군	
6	백웅제 (白雄濟)	1899	23	평북	정주군	
7	이명환 (李明煥)	1895	27	평북	정주군	신흥학교(1919) 한족화·한족신보사(1919) 군자금·군인 모집
8	김문한 (金文翰) 全文翰	1882 1883	40	평북	정주군	
9	문일 (文一)	1896?	26?	평북	정주군	군자금 모집
10	이영호 (李英浩) 金昌善 李光懨	1897	25	평북	선천군	군자금 모집
11	장충국 (張忠國)	1898?	24?	평북	용천군	
12	박민희 (朴敏熙)	1899	23	평북	정주군	
13	김익삼 (金益三)	1901?	21?	평북	정주군	
14	김준경 (金俊京) 全俊京	1902	22	평북	정주군	
15	백성무 (白聖武)	1886	36	평북	영변군	
16	백근성 (白根星)	1900	22	평북	구성군	
17	이배근 (李培根) 李信根	1903	19	평북	정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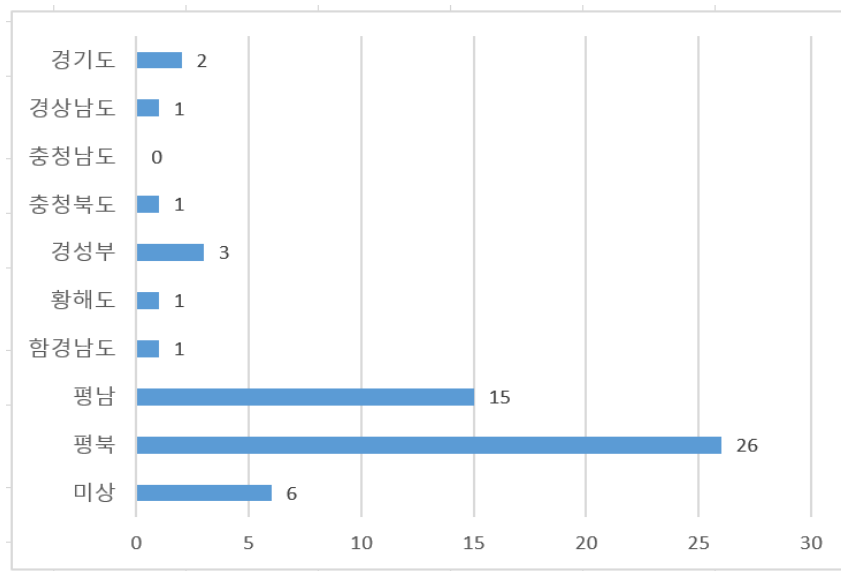
18	김손 (金翼)	1896	26	평북	철산군	
19	장채극 (張采勅) 石仲五	1893	29	평북	용천군	
20	조이주 (趙履洲) 洪默	1900	22	평북	정주군	
21	천경모 (天敬模)	1891	31	평북	정주군	
22	현병유 (玄炳瑜)	1895	27	평북	박천군	
23	장익합 (張益洽)	1894	28	평북	용천군	
24	권세일 (權世一)	1894	28	평북	태천군	
25	강정척 (姜正倜)	1886	36	평북	정주	
26	이인형 (李寅亨)	1899	23	평남	개천군	광복단 군자금 군인 모집
27	안일린 (安日麟)	1890	32	평남	안주군	
28	궁인성 (弓寅聖) 方元圭 弓圭鉉 弓希哉	1874	48	평남	순천군	유인석의병부대 대한독립단(1919) 군자금·군인 모집
29	김용림 (金容琳)	1893	29	평남	강서군	
30	김만길 (金萬吉)	1897	25	평남	안주군	대한독립단 군자금 모집
31	한일 (韓一)	1897	25	평남	순천군	군자금 모집
32	황덕교 (黃德敎)	1881?	41?	평남	평양부	
33	박문학 (朴文學)	1897	25	평남	평양부	평양금융조합 서기 결사모험대 거쳐 제공 군자금 모집
34	한 대홍 (韓大弘)	1901	21	평남	평원군	만주에서 군사와 정치 공부 / 군자금 모집/ 순천경찰서 순사 저격(1920)
35	최제균 (崔濟均)	미상	미상	평남	안주군	죄인은닉

36	김용달 (金溶達)	미상	미상	평남	안주군	가입 권유
37	오일룡 (吳一龍)	1885	37	평남	안주군	안주경찰서 순사 죄인은닉
38	박종근 (朴宗根)	1897	25	평남	강서군	군자금모집 광한단지부설치
39	이학근 (李學根)	1896	26	평남	용강군	폭탄 제조·보관군자금 모집
40	박의준 (朴義俊)	1901	21	평남	평양부	
41	이제철 (李濟哲)	1892	30	함남	북청군	
42	이영조 (李瑛朝)	1890	32	황해도	검이포 면	
43	박채상 (朴采祥)	1893	29	경남	함양군	
44	홍경식* (洪景植)	1889	33	충북	진천군	
45	이병욱 (李丙旭)	1897	25		경성부	
46	이동민 (李東敏)	1895	27		경성부	
47	정극화 (鄭克和)	1891	31		경성부	
48	홍남표 (洪南杓)	1888	34	경기도	양평군	해남학교 교원(1919~1920) 북경군사통일회의 참석(1921)
49	어수갑 (魚秀甲)	1896	26	경기도	김포군	북경군사통일회의 참석(1921)
50	차경준 (車京俊) 東京俊	미상	미상	미상		
51	황세빈 (黃世斌)	미상	미상	미상		
52	김성신 (金聖信)	미상	미상	미상	미상	
53	김준덕 (金俊德)	1892	30	미상	미상	
54	전인식 (田仁植)	1891	31	미상	미상	
55	한익현 (韓益鉉)	1881	41	평북	정주	
56	박민국 (朴敏國)			평북		

*참판 홍승헌(洪承憲)의 아들

〈표3〉의 광한단원 명단은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4.2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호원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김승학의 『한국독립사』 1965, p.390. 매일신보(1920년 12월 15일 / 1921년 1월 13일, 1월 29일, 4월 13일, 6월 8일, 7월 28일, 9월 8일, 10월 22일, 10월 30일 / 1924년 11월 13일), 동아일보(1921년 4월 17일, 5월 1일, 5월 3일, 5월 13일, 5월 31일, / 1922년 4월 3일 / 1927년 1월 27일), 중외일보(1926년 12월 7일), 조선일보(1920년 12월 25일), 신한민보(1921.06.0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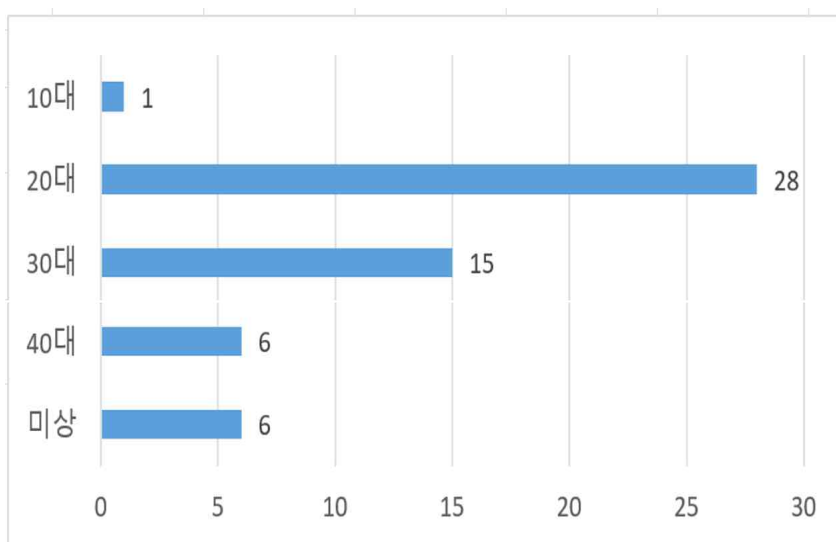
〈표 4〉 광한단원의 출신지 분포



위의 〈표 3〉 및 〈표 4〉와 같이 광한단원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경기도, 경성부, 황해도의 출신이 다수를 이루었다. 평북 출신은 이명환·방일진·박민희 등이 정주군, 오봉희·현병유가 박천군, 이영호가 선천군, 장채극이 용천군으로 모두 26명이다. 평남 출신은 김만길·최제균·김용달·오일룡이 안주군, 궁인성이 순천군, 한대홍이 평원군 등으로 15명이다. 그리고 황덕교·박의준이 평양부, 이병욱·이동민 등이 경성부 출신이다. 경기도 출신도 홍남표·어수갑이 있다. 또 이영조는 황해도, 이제철은 함경남도, 홍경식이 충청남도, 박채상이 경상남도 각 1명씩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파악된 광한단원 56명 중 41명이 평안도 출신이었다.

이들의 출신지는 광한단의 활동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광한단원으로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궁인성은 평안남도 순천군, 박정호는 평안남도 평양부, 이명환은 평안북도 정주군, 이인형은 평안남도 개천군, 이승문¹²¹⁾은 평안북도 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실제로 광한단원이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 역시 이들의 출신지이며 연고지인 평안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다.¹²²⁾

〈표 5〉 광한단원의 연령별 분포



광한단원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20대가 28명으로 50%, 30대가 15명으로 27%, 40대가 6명으로 11%였다. 2·30대가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한단의 주도 인물의 연령대가 대부분이 30대였다면 단원들의 연령대는 절반이 20대로 주도 인물인 간부들에 비하여 더 젊은 층이었다.

121) 이승문은 〈표 2〉의 이춘산이다.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金正明. (1967). 「平安北道における光韓團員檢舉の状況報告 の件」,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編』第Ⅰ券 分冊. 原書房, p.574.

122)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金正明, 위의 책, p.575-577.

광한단의 활동은 단장 이시열을 비롯한 간부(참모) 현정경·현익철·정극화·백성무¹²³⁾ 등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광한단의 군자금 모집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⁴⁾

이명환(李明煥)은 13세 때에 중국으로 건너가 서북간도 지방을 표랑하던 중 1920년 2월 광한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광복군과 독립단 등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¹²⁵⁾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중순, 단장 이시열의 명령을 받고 군자금 모집을 위해 김관성(金觀成)·박민희(朴敏熙)와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평안북도 정주군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정주군 신안면 안운동의 승계련(承啓璉)의 집에 가서 동인에게서 현금 700엔을 모집하였다.¹²⁶⁾ 이들은 그날 밤 승계련의 집에서 1박을 하고, 정주군 남면 남양리의 방일진의 집에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갔다. 그런데 방일진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열중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공명하고 이명환·김관성·박민희를 숙박시키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50엔을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이명환·김관성·박민희는 750엔을 휴대하고 관전현 본부로 돌아왔다.¹²⁷⁾

1920년 음력 9월 광한단의 제2차 파견원인 김창선(金昌善)·박민희·장충국(張忠國)·김익삼(金益三)은 군자금 모집을 위해 평북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평북 정주에 근거지를 정하고, 이명환의 명령에 따라 평양의 동지와 연락을 취하고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동월 중 평북 정주군 임해면 김상묵(金尙默)으로부터 2,000원, 기타 불명의 사람에게서 1,900원 합계 3,900원

123) 金正明, (1967), 「平安北道における光韓團員檢舉の状況報告 の件」,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編』第I巻 分冊, 原書房, p.575.

124)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金正明, 앞의 책, p.517-518, 575-577.

125)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매일신보』(1921.04.13.)에는 한족회와 독립단(조맹선과 통신)이라고 나온다.

126)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자료에서는 이명환·김관성·박민희가 권총을 가지고 승계련에게서 700엔을 강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승계련이 광한단원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127)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방일진은 이후에(1920.11.) 광한단의 결사모험대를 도와 군자금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12월 7일경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귀가 후에 사망하였다.(국가유공자 공적조서,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그 중 3,500원을 관전현 본부로 송금하였다.¹²⁸⁾

1920년 11월 초순, 이명환은 ‘결사모험대’를 조직하고, 김관성·김만길(金萬吉)·문일(文一)·박정호(朴正鎬)의 4명과 각자 콜트식 권총과 탄환 60~70발을 휴대하고 평양에 잠입하였다. 이들은 그 근거지를 평양부 계리 26번지 북금 융조합 숙직실의 박문학(朴文學)의 방에 정하였다. 이들은 평양부근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¹²⁹⁾

이어 이명환은 제2차 파견원으로 평북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김창선·박민희·장충국·김익삼과 연락을 취하고 평북 정주에 갔다. 그리고 이명환은 김이순·방일진 등과 통모하여 활동을 용이케 하고 모집한 자금의 운반 등에 종사하였다. 또한 그는 일행의 선발로서 각지에 근거지를 선정하는 한편 경계상황의 정찰에 종사하고 자주 평양에 왕복하고 평안남북도의 연락 임무에 종사하였다.¹³⁰⁾

또한 결사모험대원 박정호(朴正鎬)와 한일(韓一)도 1920년 11월 초 단장이시열의 명령을 받고 평안남도로 들어왔다. 이들은 평남 안주 안일린의 집에서 선발대 이명환 일행과 만나 이명환으로부터 권총 1정과 실탄 40발을 지급받고 육로로 평양에 잠입하였다. 이들은 황덕교의 집에 잠복하며 궁인성의 지휘를 받아 김관성과 함께 평양부 내 자산가인 김진근(金鎭根)의 집에 가서 권총으로 협박하여 그에게 군자금 1천엔의 제공을 강요한 후 당장 현금의 확보가 불가능한 탓에 10일간 유예를 주어 이를 확보하였다. 이어 이들은 동월 중 평양부내 박재창(朴在昌)의 집에 가서 그로부터 군자금 1,000원을 모집하였다. 그 중 200원은 궁인성에게 주고, 잔금 800원은 박정호·한일·김관성이 모처에 전달한 것 같다. 또 이들은 같은 달 같은 방식으로 평양부내 황연(黃演)과 황석환(黃錫煥)으로부터 각 300원 합 600원을 모집하였다.¹³¹⁾

평안북도 군자금 모집원인 김창선·장충국·박민국·박민희·김익삼은 1920년

128) 앞의 문서.

129) 위의 문서. 이 자료에는 박정호와 한일과 김관성이 모집한 돈 1,000원 중 80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전달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 진술로 보인다.

130)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滿洲의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31) 위의 문서.

음력 9월 중순에 국내로 들어와서 평안북도 정주군 부근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이명환의 도움으로 평양의 동지들과 연락하면서 정주군 임해면의 김상묵에게 2천 엔을 모집하는 등 총 3천9백 엔을 모집하고, 그중 3천 5백 엔을 관전현 광한단 본부로 송금하기도 하였다.¹³²⁾

비슷한 시기에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던 궁인성(弓寅聖)이 김관성·김만길(金萬吉)·문일(文一)·한일·이명환 등과 모의하고 평남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궁인성은 대한제국 시기 유인석의 부하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고, 3·1운동 후 서간도로 와서 조맹선이 이끄는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1920년 음력 2월 대한독립단의 모집장으로 평양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20년 11월 경 광한단의 결사모험대원 김관성·김만길·문일·한일·이명환 등과 관계를 맺고 비밀리에 모의하고 이들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평양 부내의 5개소, 평남 평원군 숙천의 2개소, 순천군의 3개소에서 도합 3,610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중 900원을 독립단 본부에 나머지를 광한단의 동지와 자신이 나누었다고 한다.¹³³⁾

광한단의 국내 연락교통기관의 설치에는 박문학(朴文學)의 역할이 컸다. 평남 평양부 계리(鷄里) 26번지의 북금융조합 숙직실에 거주하던 그는 자신의 거처를 연락교통기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광한단의 결사모험대원에게 자신의 거처를 제공하고, 특히 김관성을 그곳에 잠복케 하였다.¹³⁴⁾

박문학은 1920년 12월 23일 일제의 경찰이 광한단의 연락교통기관인 자신의 거소에 들이닥치자 이들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평안남도 제3부의 김경부(金警部)와 순사 3명이 1920년 12월 23일 오전 6시 30분에 계리금융조합을 급습하자, 박문학은 김관성과 권총을 쏘며 이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일제 순사 1명에게 총상을 입혔지만, 불행하게도 박문학은 머리와 폐부 9곳에 총상을 입고 즉사하였다. 김관성은 죽은 척 위장하고 있다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탈출하였다.¹³⁵⁾

132) 앞의 문서.

133) 위의 문서.

134) 위의 문서.

135) 『조선일보』, 1920.12.25., 〈평양계리금융조합에서 광한단과 응전〉. ; 『매일신보』, 1920.12.25., 〈금융조합소사실내에서 음모단과 순사의 맹렬한 권총전〉.

한대홍(韓大弘)¹³⁶⁾은 1920년 10월부터 최제균(崔濟均)과 함께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과 일본 순사 처단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20년 10월경 광한단의 다른 단원과 함께 박천군 가산면의 이근호의 집에 가서 군자금 오백오십여 원을 모집하였다. 또 11월 26일 밤에는 봉산군 사리원 최병환에게서 군자금 육백십여 원을 모집하였다. 한대홍은 1920년 12월 8일에는 평안남도 순천군 사인면 안흑리에 권총을 가진 독립당이 침입하였다는 첩보를 듣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손(孫)순사를 저격하기도 하였다.¹³⁷⁾

박민희는 이시열과 현정경의 명령을 받고 1920년 음력 9월 초에 고향인 곡산에서 김준경¹³⁸⁾·이영호(李英浩)와 함께 강정척에게서 지역의 상황을 듣고 부호의 명박록(名簿錄)을 받아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¹³⁹⁾ 김준경은 이호원의 지도에 따라 국내에서 28차례에 걸쳐 군자금 모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⁴⁰⁾ 간의 위원 이호원 역시 1920년 가을, 군자금 모집과 조선인 관공을 처단할 계획을 가지고 박의준(朴議俊) 등과 국내로 들어와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¹⁴¹⁾

김리순(金利淳)·방경진(方敬鎭)·오봉희(吳鳳熙)·백학제(白鶴濟)·이영조(李瑛朝)·안일린(安日麟)·이승문(李承文)·김문한(金文翰)·김용림(金容琳)·황덕교(黃德敎) 등은 광한단의 결사모험대원을 숨겨주고, 사자(使者)로 연락에 종사하고, 모집금과 무기를 보관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광한단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또 이인형(李寅亨)은 권유를 받아 광한단이 될 것을 약속하고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¹⁴²⁾

현익철은 간부로서 단원을 국내로 파견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도록 지휘하였다. 그는 1920년 가을 무렵, 남부지방의 독립운동 상황을 파악하고

136) 한 대홍은 평원군 공평면 출신으로 만주에서 군사학과 정치를 공부하였다. 송상도, (1955). 『騎驢隨筆』, p.388.

137) 『매일신보』, 1921.07.28., <광한단 거괴 취박, 순사까지 죽이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이번에 잡혀>.

138) 金俊京, 이명은 全俊京이다.

139) 金正明, (1967). 「平安北道における光韓團員檢舉の状況報告 の件」,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編』第Ⅰ券 分冊. 原書房, p.575.

140)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141) 『동아일보』, 1921.05.01., <광한단원 판결, 리효원은 징역 10년>.

142)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국내로 들어왔다. 현익철은 경상지역의 동향을 살피던 중 192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경찰서원에 게 체포되었다.¹⁴³⁾ 이러한 현익철의 활동을 통해 광한단의 활동 범위가 평안남·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비판하고, 무장투쟁을 고취하며 무장투쟁단체의 통일을 역설하던 북경 등지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모여 ‘북경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자 여기에 참여하여 반임정 노선의 제단체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박용만 등의 반임정 단체가 1921년 4월 17일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광한단도 홍남표(洪南杓)와 어수갑(魚秀甲)을 대표로 파견하였다.¹⁴⁴⁾ 이때 군사통일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내지국민공회(內地國民公會) 대표 박용만, 포왜(布哇)국민군대표 김천호·박승선·김세준, 북간도국민회대표 강구우, 서간도국정서대표 성준용·송호, 내지광복단대표 권경지, 포왜(布哇)독립단대표 권승근·김현구·박건병, 내지조선청년단대표 이광동·이장호, 아령대한민국의회(俄領大韓民國議會)대표 남공선, 내지통일당대표 신숙·황학수 등이다.¹⁴⁵⁾ 광한단에서 북경 군사통일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광한단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노선과 이승만의 위임통치론에 반대하여 조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광한단의 대표 홍남표와 어수갑은 북경군사통일회의의 도중에 탈퇴하였다.¹⁴⁶⁾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 중심 독립노선과 인사행태에 불만을 품은 것은 북경의 독립운동세력과 동일하지만 북경군사통일회의의 주도세력인 박용만과 신숙 등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창숙은 박용만과 신숙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¹⁴⁷⁾, 홍남표와 어수갑도 김창숙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 서로군정서의 독판이었던 석주 이상룡이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참여를 고려하다가 결국 참여하지 않은 것¹⁴⁸⁾과 같은 입장이었다.

143)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9.

144) 조규태. (2000).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193-223, p.206.

145) 조규태, 위의 논문, p.206.

146) 『大同』 4호, 1921.07.19., 광한단 대표 어수갑과 홍남표도 4월 30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 이유는 상해임정불승인이라는 군사통일회의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통첩」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미. (2000). “북경군사통일회의(北京軍事統一會議)연구.” 『대구사학』 60.1: 143-176, p.154.

147)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國譯)心山遺稿』. 서울: 國譯心山遺稿刊行委員會, p.736.

V. 광한단의 해체와 광한단원의 동향

이시열은 광한단의 단장으로서 국내 각지에 지단을 설치하고 단원을 파견하여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광한단의 활동 사실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알리고, 독립운동의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1920년 12월 초에 상하이로 가서 안창호를 만났고, 홍사단에 가입하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이시열은 광한단의 기존 독립운동 노선과 반하여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따랐다. 그러한 가운데 이시열은 1921년 2월 국내 각 단체들과의 연락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강원도의 봉일사로 피신하였다. 이후 이시열은 그곳에서 불교에 귀의하였고, 1929년 4월 다시 통화현으로 돌아갈 때까지 생활하였다.¹⁴⁹⁾ 아마도 이시열의 광한단 활동은 이 시기에 중단된 듯하다.

1920년 봄에 조직되어 같은 해 6·7월부터 국내에 진입하여 활발히 단원과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광한단은 1920년 12월 평안남도에서 일제의 체포 작전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1920년 말 평양금융조합 서기 박문학이 광한단결사모험대원 김관성을 자택에 숨겨주고 있었다. 그런데 평안남도 제3부에서 탐지하고 12월 13일 미명에 박문학의 집을 급습하였다. 두 사람이 응사하며 저항하다가 박문학은 총탄을 맞고 즉사하였지만 김관성은 도주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 계속 수사의 결과 단원 2명과 관계자 수명이 체포되고 말았다.¹⁵⁰⁾ 또 1921년 1월 궁인성이¹⁵¹⁾, 3월 9일에는 이호원이 체포되었다.¹⁵²⁾

148) 이상룡, 「연계여유일기(燕薊旅遊日記)」, 『石洲遺稿』, p.287-289.

149) 「나의 過去」, 『어문집』, p.481. ; 신용철, (2002). 「내 생에도 역경사업을」, 『운허스님의 크신 발자취』. 동국역경원. ;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중교”, 『승실사학』, 28: 177-207, p.193.

150)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1) 『조선일보』, 1921.01.24., <배일수령 궁인성 체포>.

152)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4.2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그리하여 단원의 상당수가 다음의 <표 6>과 같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표 6> 광한단원의 재판 결과

번호	이름	재판 결과		번호	이름	재판 결과	
1	이호원	징역 10년	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9	궁인성	징역 12년	평양복심법원 (1921.05.25.)
2	이춘산	징역 1년	평양지방법원 (1921.04.15.)	10	김만길	징역 10년	구형, 평양지방법원 (1921.10.8.)
3	박정호	징역 8년	평양복심법원 (1921.05.25.)	11	한대홍	징역 7년	평양지방법원 (1921.09.26.)
4	오봉희	징역 2년	고등법원 형사부 (1921.06.09.)	12	최제균	징역 1년	평양지방법원 (1921.09.26.)
5	이명환	징역 5년	평양지방법원 (1921.04.15.)	13	오일룡	징역 2년	구형, 평양지방법원 (1921.10.8.)
6	김문한	징역 3년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	14	홍경식	징역 1년	신의주지청 (1921.04.26.)
7	김준경 (전준경)	무기 징역	공훈전자자료관 공적조서(70138)	15	이병옥	징역 2년	신의주지청
8	이인형	징역 2년	평양지방법원 (1921.04.15.)	16	이영호 (이광형)	무기 징역	공훈전자자료관 공적조서(70856)

김준경(전준경)·이영호(이광형)이 무기징역, 궁인성이 징역 12년, 이호원과 김만길이 징역 10년(구형), 박정호가 징역 8년, 한대홍이 징역 7년, 이명환이 징역 5년, 김문한이 징역 3년, 오봉희·이인형·오일룡·이병옥이 징역 2년, 이춘산·최제균·홍경식이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경상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현익철도 1920년 말 경북의 안동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3년의 형을 받고, 전주형무소 등지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는 1931년 봉천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현익철의 다음과 같은 경력에서 확인된다.

대정 9년 가을 무렵에 이르러 남선(南鮮) 방면의 독립운동 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귀선한바, 동년 11월 경상북도 안동(安東)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이듬해 10년 1월에 대구 지방법원 안동 지청에서 제령(制令)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연도를 받고 전주(全州)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¹⁵³⁾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의하면, 현익철은 1921년 4월 김준경(金俊京) 등 9명의 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정주군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됨에 일시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일경에게 체포되어 징역 3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되어 있다.¹⁵⁴⁾ 그러나 이것은 오류인 듯하다. 국가기록원의 판결문과 수형인명부 등에 의하면, 현익철은 1921년 2월 1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4월 18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¹⁵⁵⁾

광한단의 단장 이시열의 이탈과 광한단원의 대거 검거,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군사통일단체 결성 불발 등으로 광한단은 1921년 중반 해체의 상태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심인물이 이탈하고, 국내의 각 지단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대거 검거되어 단원 모집과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북경 군사통일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하자, 광한단도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이시열에 이어 광한단을 이끈 현정경은 계속 만주에서 활동하며 1922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 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22년 1월 서간도의 환인현에서 광한단은 서로군정서·대한독립단 등의 대표들과 함께 ‘남만통일회’를 결성하고, 비슷한 시기 이를 대한통군부로 발전시켰다.¹⁵⁶⁾ 그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나, 현정경은 광한단의 대표였으므로, 그는 ‘남만통일회’와 ‘대한통군부’의 결성에 참여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53)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8.

154)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국가보훈처.

155) 현익철 수형인명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56) 박결순, 「통군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4, p.199-200. 박결순. (1990). “대한통군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221-254, p.5.

1922년 8월 대한통군부가 대한통의부로 발전하자 현정경은 이에 참여하였다. 대한통군부는 1922년 8월 23일, 서로군정서·대한독립단(기원)·관전동로한 교민단·대한광복군총영·대한정의군영·평안북도독판부·대한광복군영 등의 8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 명의를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로 결정하였다.¹⁵⁷⁾ 이때 현정경은 사법사무를 통괄하는 법무부장이, 김관성은 검무감(檢務監), 고할신은 비서과장이 되었다.¹⁵⁸⁾ 그리고 김이대는 민사부장¹⁵⁹⁾에 임명되었다. 또한 홍경식도 이병욱과 함께 1924년 8월 경성에서 통의부 조선지부 설치를 시도한¹⁶⁰⁾ 것으로 보아 이들도 대한통의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의부에 참여한 광한단원들은 1923년 내분이 일어나 대한독립단계의 인물들이 의군부로 분열할 때¹⁶¹⁾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는 『쌍공 정이형 회고록(雙公 鄭伊衡 回顧錄)』에서 확인된다.

그것은 제대 당한 소대장 김시영에게 前 독립단 군인을 영솔하고 있는 金昌天의 군인을 전덕원의 명령으로 소집·지휘하여 일야에 梁起鐸선생, 玄正卿·金寬聲·黃東浩 등 십여 인을 포박하고 朝鮮總督府의 偵探으로 만주 독립군의 파괴공작을 한다는 누명 하에 살해하려 하였다.¹⁶²⁾

대한통의부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념의 차이, 주요직의 배분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직에 밀려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전덕원과 의병출신 인물들이 모의하여 양기탁과 고할신을 제거하려던 과정에서 광한단 출신의 현정경과 김관성이 변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덕원계의

157) 「南滿韓族統一會 決議事項 및 職員布告文 入手에 관한 건」(1922.09.22.), 『不逞鮮人關係 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8) 「南滿韓族統一會 決議事項 및 職員布告文 入手에 관한 건」(1922.09.22.), 『不逞鮮人關係 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9) 박결순, 앞의 논문, p.10.

160) 『매일신보』, 1924.11.13., 〈경성에 통의부지부 군자를 모집 중 검거된 4명〉.

161) 통의부의 중앙 간부들은 공화주의계가 다수였으나 의용군의 지휘관들은 대한독립단계의 의병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특히 양기탁과 전덕원의 갈등이 심한 것에 더하여 요직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까지 있었다. 이에 전덕원계 인사들은 1923년 8월 대한통의부를 이탈하여 의군부(義軍府)를 조직하였다.

162) 국가보훈처 편. (1996). 『雙公 鄭伊衡 回顧錄』. 서울: 국가보훈처, p.72.

의용군은 대한통의부를 이탈하여 의군부(義軍府)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대한통의부는 분열되었다.

대한통의부에 남아 활동하던 광한단 출신의 인물들은 1924~25년 대한통의부가 정의부로 재편될 때 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광한단의 고할신은 1924년 10월 길림에서 김동삼 등과 전만통일회의(全滿統一會議)를 개최하고 정의부(政義府)를 조직하였다.¹⁶³⁾ 현정경은 처음에는 정의부 참여를 망설였다. 현정경은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여 “한교 대중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기관으로 변질”된 정의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사회주의자들과 관계를 맺고 ‘남만학원(南滿學院)’을 설립하고 청년학생에게 사회과학을 교육하였다.¹⁶⁴⁾ 그러다가 현정경은 1925년 대한통의부의 의용군 6·7·8 중대를 이끌고 정의부에 합류하였다.¹⁶⁵⁾ 그러나 그는 시기와 모함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그는 정의부의 세력범위를 벗어나 열하(熱河)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¹⁶⁶⁾ 1928년에는 형을 마친 이호원도 중국으로 돌아와 정의부가 운영하는 화흥중학교(化興中學校)의 교사로 활동하였다.¹⁶⁷⁾

그런데 형을 마치고 나온 현익철은 1924년 9월, 당시 대한통의부 간부였던 현정경·오동진 등과 흥경현에서 만나 면접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¹⁶⁸⁾ 그런데 얼마 뒤 현익철은 대한통의부의 외무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¹⁶⁹⁾ 그렇지만 현익철의 대한통의부 참가는 믿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920년대 말 만주의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의 독립운동단체가 국민부와 한족총연합회로 분열되어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분화될 때 광

163) 김희주. (1993). "대한통의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9.

164) 『新華日報』, 1942.5.11., 〈한국 혁명계의 선배 玄河竹 동지를 추모하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5) 경상북도경찰부. (1934). 『고등경찰요사』. 경성: 경상북도경찰부, p.117-118.

166) 『新華日報』, 1942.5.11., 〈한국 혁명계의 선배 玄河竹 동지를 추모하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7) 『동아일보』, 1932.11.18., 〈민족운동의 거두 이호원 등 공판결심〉.

168) 『봉천에서 체포된 국민부 수령 현익철의 경력에 관한 것』 (1931.09.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628.

169) 김희주. (1993). "대한통의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에는 현익철이 1924년 대한통의부 외무위원장으로 나온다.

한단 출신의 인물들은 대체로 국민부와 조선혁명당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이 시열도 1929년에 만주로 돌아와 국민부(國民府)를 조직할 때 간부로 참여했으며, 이후 조선혁명당이 창당하자 중앙집행위원 겸 교육부장으로 활동하였다.¹⁷⁰⁾

17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p.591.

Ⅵ. 맺음말

1919년 3·1운동 후 서간도 지방에서 한인들은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국권의 침탈 이후 압록강 대안의 유하현, 관전현, 집안현, 환인현 등지에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활동하던 한인들은 3·1운동을 계기로 삼아 보다 실제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장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 의병·유림계통의 인사들은 보약사·향약계·농무계·포수단 등의 단체를 통합하여 왕조를 부활시키려는 복벽주의의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또 한편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한인들은 한족회와 군정부를 조직하였다. 1919년 11월 군정부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명칭을 군정서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때에 광한단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그동안 광한단은 1920년 초에 관전현 향로구에서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소극적인 투쟁에 실망한 한족회 내의 소장파 현정경, 현익철, 이시열, 이호원, 김석손, 홍원경 등이 국내에서 서간도로 새로 들어온 장명환, 김관성, 이춘산, 김태호, 박정호 등과 함께 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광한단에 대하여는 그 조직 시기와 배경, 주도 인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광한단은 1920년 봄, 즉 2월에서 5월 중에 조직되었다. 이때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서·북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편제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탁이 서간도에서 광복군총영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던 소장파들은 광한단을 조직하였다. 이는 광한단의 독립투쟁 노선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론과 이승만의 노선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또 광한단의 목표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국내에 진격하여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고 일제 관원과 친일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시열 등은 서로군정서의 소극적인 무장투쟁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한단을 조직한 것이다.

광한단의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 내 소장파와 국내에서 서간도로 들어와 합류한 인물, 그리고 기존에 서간도에서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다. 광한단의 단원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공화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안창호·이승만과 같은 기독교 계통이 아니라 대종교 계통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한독립단에서 광한단으로 합류한 이들은 화서 이항로 학파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또 한족회·서로군정서의 이상룡 등의 소극적인 무장투쟁에도 반대하였다.

1920년 당시 광한단원은 100여 명에 이르렀다. 광한단의 주도 인물의 반 이상이, 그리고 단원의 70% 이상이 평안도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평북출신이 많았다. 광한단 구성원의 연령은 주도 인물의 반이 30대이고, 단원은 반이 20대이다. 광한단의 80%가 2·30대 젊은이들이었다.

광한단은 전국의 각 면에 지단을 설치하여 단원을 확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그 지단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단원 대부분은 연고지가 있는 평안남·북도에 집중되었다. 광한단은 1920년 6월 이후부터 평안남도의 평양과 박천, 평안북도의 정주 등지로 단원을 파견하여 지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현익철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체포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한단은 경상도에도 단원을 파견하여 지단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100여 명에 이르는 단원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광한단은 1920년 12월 평안남도에서 단원 9명이 체포되어 그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단원이 체포되는 등 위기에 처했다. 단장 이시열도 1921년 2월 국내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락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광한단은 다른 무장독립운동단체와 힘을 합하기 위하여 1921년 4월 북경군사통일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렇지만 주도권 장악의 다툼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시열에 이어 광한단의 단장이 된 현정경은 1922년 초 양기탁의 남만주통일운동에 참여하여 그해 중반 대한통의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광한단 출신의 수명의 단원은 대한통의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중반 통의부가 참의부·정의부·신민부로 재편될 때, 광한단의 단원들은 대체로 정의부에 참여하였다. 광한단 출신인 고할신은 1924년 10월 길림에서 김동삼 등과 전만통일회의를 개최하고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현정경은 1925년 통의부의 의용군 6·7·8 중대를 이끌고 정의부에 합류하였다. 또 이호원도 1928년 형을 마치고 만주로 돌아와 정의부에 참여하였다.

참 고 문 헌

『獨立新聞』

『大同』

『東亞日報』

『每日新報』

『韓族新報』

『新華日報』

『朝鮮日報』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1916.08.0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
ノ部-在滿洲ノ部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권, 임시의정원 I, 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
(1919.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1919.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권, 임
시의정원 I.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興京地方鮮人獨立騷擾二關スル狀況報告」(1919.04.02.), 『興京縣內鮮人
騷擾ノ狀況二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興京縣 內 鮮人 騷擾狀況에 관한 件」(1919.04.10.),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安秉瓚 等 逮捕에 關한 件」(1920.05.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不逞鮮人 潛入 資金募集의 件 續報」(1920.06.09.), 『大正8年乃至同10年朝
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朝鮮人獨立運動 狀況 報告의 件」(1920.06.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
人の 部-在滿洲의 部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2.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
洲의 部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不逞鮮人狀況二關スル件」(1921.03.02.),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國外情報 西間島地方 情報 一束」(1921.03.1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不逞鮮人 行動의 件」(1921.04.1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光韓團員 檢舉의 件」(1921.04.2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國外情況 : 上海在住不逞鮮人の 狀況」(1921.04.29.),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오봉희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6.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 「이호원의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21.07.0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 「관내 불령선인 일람표 진달의 건」(1921.11.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臨時報 第58號(不逞鮮人 動靜)」(1922.02.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南滿韓族統一會 決議事項 및 職員布告文 入手에 관한 건」(1922.09.22.), 『不逞鮮人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吳東振 事件 判決」(1932.06.21.), 『사상월보』, 제2권 제4호.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 원년(1919) 주요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2 92권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2년(1920) 주요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2 92권 『조선민족운동연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민족독립운동사 연표」(1920庚申), 『한민족독립운동사』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상북도경찰부 편. (1934). 『고등경찰요사』. 경성: 경상북도경찰부.

전주이씨 안원대군파 종친회, (1995). 『全州李氏安原大君派大同譜』, 卷之三. 경기도: 화상사.

연주현씨대종회, 『延州玄氏大同譜』 卷之五.

「리호원」, 국가보훈처.

「이호원 간부등기표」(1951년 이호원 자필 작성),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편. (1996). 『雙公 鄭伊衡 回顧錄』. 서울: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3, 3·1운동.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전쟁.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國役)心山遺稿』. 서울: 國譯心山遺稿刊行委員會.

강진영. (2012). 이호원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199-228.

김동환. (2000). 백산 안희제와 대종교. 『국학연구』, 5, 63-93.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일반서적 출판부 (보급처: 독립동지회).

金正明, (1967). 「平安北道における光韓團員檢舉の狀況報告の件」,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編』 第 1卷 分冊, 原書房.

김정미. (2000). 북경군사통일회의(北京軍事統一會議)연구. 『대구사학』, 60.1, 143-176.

김희주. (1993). "대한통의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안창호일기. 『도산안창호전집 4』. 서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75). 『독립운동사』 7, 의열투쟁사.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 박걸순. (1990).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221-254.
- 박환. (1989). 서로군정서의 성립과 그 활동. 『한국학보』, 15, 98-128.
- _____. (2014).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서북간도 독립군의 활동: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87-99.
- _____. (2014). 대한독립단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재조명. 『만주지역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113-139.
- _____. (1991).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 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충남: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 송상도. (1955). 『騎驢隨筆』.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 신용철. (2019). 항일 독립운동가 이시열, 운허 스님. 『춘원연구학보』, 16, 207-231.
- 신운용. (2015). 대중교세력의 형성과 의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5-54.
-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경기도: 아세아문화사.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국역 석주유고, 下』.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1. 서울: 경인문화사.
- 양지선. (2020). 이호원의 재중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179-216.

- 오영섭. (2012).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1, 81-156.
-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33, 101-140.
- 이강훈. (1981). 『무장독립운동사』, 서울: 서문당.
- _____. (1984). 『항일독립운동사』. 서울: 정음사.
- _____. (2002).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과 통일노선』. 서울: 경인문화사.
- 이덕근. 「반일 민족독립지사-이호원」, 국가보훈처
- 이숙화. (2017). “大倭敎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창. (2017). 독립운동가인가 변절자인가. 『사건과 인물로 보는 우리 근현대사』, 27.
- 임상선. (2004). 朴殷植의 『渤海太祖建國誌』의 검토. 『韓國史學史學報』, 10, 69-92.
- 조규태. (2000).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193-223.
- _____. (2020). 해산 김정묵의 중국 관내에서의 민족운동. 『대구사학』, 138, 115-148.
- 조준희. (2012).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송실사학』, 28, 177-207.
- _____. (2020). 평북 정주 배천 조씨 일가의 배달학교 설립과 경신참변. 『대종교연구』, 3, 133-204.
- 진혜준. (1988). “한족회의 민족독립운동에 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근식. (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 최형우. (1945).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서울: 동방문화사.
- 한국국가보훈처. (2007). 『李慈海自傳』. 서울: 국가보훈처.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8). 『한국독립운동사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4·5. 충남: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1987).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충남: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상도. (2017). 이택의 독립운동 역정과 생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58-124.
- 황이슬. (2016). 현정경의 민족운동과 그 향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81-118.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Gwanghandan

Jang, Jin Sook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fter the 3·1 Movement in 1919, Koreans organized 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in the Seogando region to launch 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invasion of national sovereignty, Koreans who built and operated independence bases in Yuha-hyeon, Gwanjeon-hyeon, Gajeong-hyeon, and Hwanin-hyeon on the other side of the Yalu River formed 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group to carry out an efficient independence movement due to the March 1st Movement. Members of the Uibyeong and Yurim organized the Daehan dongnipdan of Monarchism to revive the dynasty by integrating organizations such as Boyaksa, Hyangyak, Nongmu, and Posudan. On the other hand, Koreans who pursued republicanism organized the Hanjokhoe and the gunjeongbu. In November 1919, gunjeongbu accepted the reques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Shanghai and renamed it the gunjeongseo.

At this time, the Gwanghandan was newly organized. In the early 1920s, it was reported that in Hyangno-gu, Gwanjeon-hyeon, Hyun Ik-cheol, Lee Si-yeol, Lee Ho-won, Kim Seok-son, and Hong Won-kyung,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passive struggle of the

Hanjokhoe and Seoro gunjeongseo, organized a more active armed struggle with Jang Myung-hwan, Kim Kwan-sung, Lee Chun-san, Kim Tae-ho, and Park Jung-ho. But as for the Gwanghandan, the timing and background of the organization, the leading person,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ctivities were not clearly revealed.

The Gwanghandan was organized in the spring of 1920, that is, between February and May. At this tim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was trying to distribute the independence movement group active in the Seogando and Bukgando und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ther words, Lee Tak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organizing the Gwangbokgun chongyeong in Seogando.

Accordingly, disgruntled Hanjokhoe and young people who were active in the Seoro gunjeongseo and Daehan dongnipdan organized the Gwanghandan. This means that the line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of the Gwangdan was different from the diplomatic the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hanghai and Lee seung-man's line. Therefore,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Daehan gwangbokgun Command and the Daehan gwangbokgun chongyeong. In addition, the goal of the Gwangdan was to carry out an active armed struggle, and it was to advance into Korea, destroy Japanese institutions, and remove Japanese officials and pro-Japanese forces. Against this background, Lee Si-yeol and other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passive armed struggle of the Seoro gunjeongseo and organized the Gwanghandan.

The people who took the lead in the organization of the Gwanghandan Group are the young people in the Hanjokhoe, those who entered and joined Seogando from Korea, and those who were previously active in the Daehan dongnipdan and the Daehan cheongnyeondan yeonhaphoe in Seogando. Gwanghandan, lik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imed for republicanism, but it was not a Christian line, like Ahn Chang-ho and Lee Seung-man, but Daejonggyo line. And those who joined the Gwanhandan from the Daehan dongnipdan were the Hwaseo Lee hang-ro School. They also opposed passive armed struggles such as the Hanjokhoe and Lee Sang-ryong of the Seoro gunjeongseo.

In 1920,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Gwanghandan unit reached 100. More than half of the leading figures in Gwanghandan were from Pyeongan-do, and more than 70% of the members were from Pyeongan-do, especially from Pyeongbuk. Half of the leading figures are in their 30s, and half of the members are in their 20s. 80% of the

Gwanghandan we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Gwanghandan tried to expand its members and carry out military fund recruitment activities by installing branches on each side of the country. The size of the branch is unknown, but most of the members would have been concentrated in Pyongan-nam-do and Buk-do Province, where their hometowns are located. Since June 1920, the Gwanghandan Group has dispatched members to Pyongyang, Jeongju, and Bakcheon to actively collect military funds. However, as it can be seen from the arrest of Hyun Ik-cheol in Andong, Gyeongsangbuk-do, the Gwanghandan also dispatched members to Gyeongsang-do to establish an altar.

The Gwanghandan group, which was armed with handguns and engaged in military fundraising activities, in December 1920, nine members were arrested in South Pyongan Province,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organization, and many members were arrested. Lee Si-yeol, the leader of the group, also infiltrated Korea in February 1921 to contact each domestic organization, but was discovered by the Japanese and was unable to return.

Under these circumstances, as independent activities became difficult, the Gwanghandan made an effort to send a delegation to the Beijing Military Unification Conference in April 1921 to integrate with other armed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However, due to the struggle for control of the initiative, the desired results were not achieved.

Following Lee Si-yeol, Hyun Jeong-kyung, who became the leader of the Gwanghandan Group, sympathized with Yang Ki-tak's South Manchuria Unification Movement and participated in the formation of the Daehan tonguibu in the spring of 1922. In addition, several members from Gwanghandan participated in the Daehan tonguibu.

In the mid-1920s, when the Tonguibu was reorganized into the Chamuibu, the Jeonguibu, and the Sinminbu, members of the Gwanghandan generally participated in the Jeonguibu. Ko Hal-sin, a former member of the Gwanghandan, held a meeting(Jeonman tongil hoeui) with Kim Dong-sam and others in Gilim in October 1924 and organized the Jeonguibu. In 1925, Hyeon Jeong-gyeong joined the Jeonguibu with the 6th, 7th, and 8th companies of the Uiyonggun of the Tonguibu. In addition, Lee Ho-won returned to Manchuria after his sentence in 1928 and participated in the Jeonguibu.

【Key-words】 Gwanghandan, Lee Si-yeol, Lee Ho-won, Hanjokhoe, Daehan dongnipdan]